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8 호 4월 20일

평양 근로자사 1963

근로자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제 8 호 (222)

1963년 4월 (하)

차　례

백전 백승의 레닌의 기치

조선 인민은 전 세계 진보적 인류와 더불어 세계 로동 계급과 피압박 대중의 위대한 수령이며 스승인 웨. 이. 레닌 탄생 93 주년을 뜻깊게 맞이한다.

레닌의 이름과 영상은 전 세계 근로 연민과 진보적 인류의 심장 속에 영원히 살아 있으며 프로레타리아 혁명 승리의 상징으로,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승리의 꺼질 줄 모르는 고무적 상징으로 되고 있다. 자본의 착취와 억압에서 인간을 영원히 해방할 데 대한 레닌의 사상은 혁명적 언민들의 승리의 앞길을 밝혀 주는 위대한 홰'불로 되였으며 날과 더불어 수천 수억만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그들을 영웅적 투쟁에로 불러일으키고 있다. 레닌주의는 전 세계 로동 계급을 무장시켰으며 그들의 백전 백승의 승리의 기치로, 무기로 되였다.

93 년 전 레닌이 탄생하였을 때 인류는 아직 자본주의의 암흑 속에 있었고 프로레타리아 혁명은 자본주의 태내에서 태동하고 있었다.

19 세기 말에 이르러 자본주의는 제국주의 단계에로 발전하였으며 자본주의 모순은 절정에 이르렀다. 맑스주의자들 앞에는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심각한 분석을 가하여야 할 새 임무가 제기되였다. 바로 인류의 영재, 위대한 레닌이 력사가 제기한 이 과업을 해결하였다.

레닌은 제국주의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혁명의 전야로서의 제국주의의 특징과 그의 력사적 지위를 천재적으로 천명하였으며 한 나라에서의 프로레타리아 혁명 승리의 가능성에 대한 리론을 제기하였다.

레닌은 로씨야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전위대인 혁명적 볼쉐위크 당을 창건하였으며 로씨야 로동 계급과 인민 대중을 령도하여 세계 령토의 6 분의 1의 땅에서 제국주의 쇠사슬을 끊어 버리고 처음으로 로동 계급의 주권인 사회주의 국가를 창건하였다. 이리하여 인류 력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였다.

레닌주의는 일반적으로는 프로레타리아 혁명에 관한 리론과 전술이며 특수적으로는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리론과 전술이다. 레닌은 맑스주의를 자본주의의 새 조건과 프로레타리아트 계급 투쟁의 새로운 조건에서 발전시켰으며 풍부화시켰다.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학설은 맑스주의의 기본 문제이며 레닌주의의 기본 내용이다.

레닌은, 프로레타리아트가 자기의 해방 위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낡은 부르죠아 통치 기구를 파괴하고 전복된 착취자들의 반항을 진압하며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함에 있어서 유일한 무기인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레닌은, 프로레타리아 혁명은 반드시 부르죠아 통치 기구를 짓부시고 프로

레타리아 독재로 그것을 대체하여야 한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였다.

《부르죠아 국가가 프로레타리아 국가(프로레타리아 독재)에 의하여 대체되는 것은 〈조락〉으로써는 될 수 없고 일반적 통칙에 의하여 오직 폭력 혁명으로써만 될 수 있는 것이다.》(전집, 제 25 권, 제 506 페지)

레닌은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최고 원칙— 맑스의 로농 동맹에 관한 사상을 새로운 력사 조건 하에서 더욱 발전시켰다.

혁명의 영재 레닌에 의하여 제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혁명 시기의 민족-식민지 문제에 관한 리론이 전면적으로, 과학적으로 천명되였다.

레닌은 또한 로동 계급의 전위대인 당에 관한 맑스의 학설을 가일층 발전시키고 당 건설과 당 생활에 관한 규범을 작성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리론을 과학적 토대 우에 집대성하였다.

레닌의 일생은 맑스주의의 원쑤들과의 투쟁으로 일관되였다. 레닌은 제 2 국제당을 지배하고 있던 수정주의자들 및 온갖 기회주의자들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통하여 맑스주의의 순결성과 혁명성을 고수하였다. 레닌주의는 온갖 맑스주의의 원쑤들과의 투쟁 속에서 발전하였다.

맑스와 엥겔스의 위업을 계승하여 레닌이 세계 로동 계급과 진보적 인류 앞에 남긴 업적은 실로 헤아릴 수 없이 크며 그것은 영생 불멸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넘어 가는 세계사적 전환의 시대, 《국제적 규모에서 격렬한 계급 투쟁이 진행되며 지구 상의 모든 피착취 인민들과 피압박 민족들이 해방 투쟁에 떨쳐 나서고 있는 위대한 투쟁의 시대이며 혁명적 폭풍우의 시대》(김 일성,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에 살고 있다.

국제 무대에서 세계 사회주의 력량은 제국주의와 온갖 반동 세력을 압도하고 있으며 강대한 세계 사회주의 체계는 인류 력사 발전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되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의 형성과 그 위력의 장성은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적 진보를 위한 불패의 성새이며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승리의 담보이다.

세계 사회주의 진영의 영향과 이 진영 인민들의 지지 밑에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이 전례 없이 앙양되고 있으며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는 종국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레닌이 그처럼 거대한 관심을 돌렸으며 기대를 걸었던 아세아 대륙에서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중화 인민 공화국, 월남 민주 공화국의 출현과 그의 위력의 장성은 2 차 대전 후 가장 큰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으며 국제 무대에서 력량 관계를 사회주의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환시킨 주요한 요인이다. 오늘 아세아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강력한 반제 투쟁의 치렬한 《전투장》으로 되고 있다. 아세아에서 식민주의의 마지막 흔적을 청산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더욱 격렬히 전개되고 있으며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지탱점들이 총 붕괴되고 있다.

아세아에서 뿐만 아니다 아프리카와

타린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단호한 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가 총 붕괴되고 있다.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의 이와 같은 발전은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약화시키며 그 세력 범위를 축소시키는 강력한 요인으로 되며 세계 프로레타리아 혁명 투쟁과 승리에 극히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레닌은 일찌기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일환으로서의 민족 해방 투쟁에 대한 거대한 의의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착취 당하고 압박 받는 로동자들의 혁명적 공세가… 수억만 사람들, 즉 어제까지 력사 밖에 서 있었으며 오직 력사의 대상으로서만 간주되여 오던 수억만 사람들의 혁명적 공세와 결합될 때 세계 제국주의는 타도되고야 말 것이다.》(전집 제 31 권, 272 페지)라고 하였다.

레닌과 그의 전우들에 의하여 그의 주요한 고리가 무너지기 시작한 자본의 성벽은 근저로부터 뒤흔들리고 있다. 제국주의 집단 내부를 사분오렬케 하고 있는 그들 간의 모순은 대전 후 가장 첨예화되고 있으며 그것은 정치, 경제, 군사에 이르는 모든 측면을 포괄하고 있다.

세계 사회주의 력량의 급격한 장성, 피착취 인민들과 피압박 민족들의 혁명 투쟁의 전례 없는 앙양은 그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우리 시대의 확고한 추세이며 제국주의의 종국적 멸망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는 불가피하다.

쇠퇴와 멸망에 직면한 제국주의, 특히 미 제국주의는 자기들의 파멸적 위기를 수습하려고 발악하면서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며 민족 해방 투쟁을 교살하기 위한 침략과 전쟁 정책에 그 어느 때보다도 발광적으로 매여 달리고 있다. 제국주의 통치 기구가 고도로 군사화되였고 착취 계급이 력사 상 오늘처럼 방대한 폭력 기구를 가져 본 적은 없다. 제국주의자들은 방대한 폭력 기구에 의거하여 더우더 침략 행동을 로골화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제국주의자들과 국제 반동들은 사회주의 진영을 내부로부터 와해하기 위한 책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에 있어서 제국주의자들은 레닌주의의 변절자들, 수정주의자들을 앞잡이로 리용하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를 외곡하고 인민 대중의 혁명 투쟁을 마비시키며 제국주의를 비호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에게 복무하고 있다.

모쓰크바 성명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맑스-레닌주의를 외곡하며, 그 혁명적 정신을 거세하는 수정주의, 우경 기회주의는 리론과 실천에서 부르죠아 사상을 반영하며, 로동 계급의 혁명적 의지를 마비시키며 제국주의자들과 착취자들의 압박을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해방과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로동자들과 근로 대중을 무장 해제시키며 해이하게 한다.》

제국주의 머슴'군으로 전락된 찌또 도당을 대표자로 하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진수와 그 혁명 정신을 거세하고 제국주의를 비호하고 전쟁에 대한 공포증을 류포시키면서 인민 대중의 의식을 마비시키며 대중을 무장 해제시키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파괴하려고 비렬하게 책동하며 혁명 투쟁을 거부하고 제국주의와 무원칙하게 타협할 것을 설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정주의자들의 비렬한 책동에 대하여 높은 경각성을 가지며 그를 철저히 폭로 분쇄하는 것은 레닌주의의 순결성과 그 원칙을 고수하며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승리를 보장함에 있어서 일차적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교조주의를 반대하여 시종 일관 투쟁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간고한 시련 속에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할 것이며 그의 혁명적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 들 것이다.

제국주의자들과 변절자들의 발악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조건 하에서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은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의 공동 위업의 승리를 위한 담보이다.

공산주의 운동은 처음부터 국제적인 운동이며 전 세계에서의 맑스-레닌주의 위업의 승리는 오직 국제 로동 계급의 단결에 의해서만 보장된다. 단결은 우리의 힘을 10 배, 100 배로 증대시킨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위하여 시종 일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였으며 단결에 해를 주고 단결을 파괴하는 어떠한 행동도 배격하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이 단결하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 로동 운동이 단결하며 세계 혁명 력량이 단결하여 진출할 때 그 어떠한 원쑤도 함부로 날뛰지 못할 것이며 제국주의의 멸망은 더욱 촉진될 것이다.

원쑤들의 발악적인 책동과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민족적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의 거류는 자본의 아성을 근저로부터 뒤흔들고 있다.

레닌의 사상은 오늘 전 세계에서 승리하고 있으며 그가 전 생애를 다 바쳐 투쟁한 세계 혁명의 위업은 성취되고야 말 것이다.

* *

레닌주의는 그가 그처럼 깊은 관심과 동정을 돌리였던 아세아의 일각, 조선땅에서 전면적으로 승리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조선 혁명에 준 레닌의 사상의 거대한 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레닌의 사상의 서광은 험악한 식민지 통치의 암운이 우리 조국에 무겁게 덮여 있던 그 때에 그 암운을 뚫고 우리 인민의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의 길을 비쳐 주었다. 오늘 레닌의 학설은 그가 자기의 훌륭한 전 생애와 천재를 다 바쳐 건설하려던 그런 찬란한 새 사회를 우리 조국에 건설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향도적 지침으로 되고 있다.》(선집, 제 4 권, 299 페지)

민족적 비운이 서리였던 일제 통치의 암담한 시기에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장구한 기간 영

웅적인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투쟁을 통하여 조선에서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을 위한 조직 사상적 준비와 빛나는 혁명 전통을 이룩하였다.

민족 해방 투쟁에 관한 학설은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비로소 조선 혁명의 구체적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되였으며 레닌주의는 조선 혁명의 확고한 전략 전술적 기초로 되였다.

장기간의 간고한 항일 무장 투쟁 과정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공산주의적 핵심과 그에 의하여 이룩된 당 창건을 위한 조직 사상적 준비와 빛나는 혁명 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조선 인민은 해방 후 그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 하에서도 짧은 기간 내에 혁명의 강철 같은 참모부를 가지게 되였으며 당의 령도 밑에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3 년간의 조국 해방 전쟁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일대 시련의 시기였다.

자기의 운명을 두 손에 튼튼히 틀어쥔 영웅적 조선 인민은 레닌적 당, 조선 로동당의 령도 하에 무비의 용감성과 영웅성을 발휘하여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16 개국의 무력 침략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지켜 냈다. 전쟁에서의 조선 인민의 승리는 우리 제도와 맑스-레닌주의를 자기의 지침으로 하는 우리 당과 당의 령도 하에 주권을 틀어 쥔 우리 인민의 불패의 위력을 세계에 시위하였으며 허장성세하는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산산이 부셔 버렸다. 조선 인민의 승리는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의 투쟁에 막대한 고무적 영향을 주었다.

전후에 들어 와서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조성된 조건과 환경에 부합되게 창조적으로 적용 발전시킴으로써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을 작성하였다.

혁명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해야 한다.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 이것은 자력 갱생의 맑스-레닌주의적 원칙에서 출발한 우리 당의 일관한 경제 로선이다.

우리 당의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은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급속히 촉진시키기 위하여 레닌의 재생산 리론을 우리의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현명한 방침이다.

이 로선에 의거함으로써 우리 인민은 전후 짧은 기간에, 요구되는 각종 설비를 자체로 생산할 수 있는 강력한 중공업 기지와 소비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장성하는 수요를 능히 충족시킬 수 있는 믿음직한 경공업 기지를 창설하였다.

물과 풀이 있고 나무가 자라는 곳이면 어디서나 살아서 싸우고 싸워 이기며 자기의 두 주먹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드는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발휘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에 천대 받고 억눌리고 빈궁에 시달리던 처지로부터 급속히 벗어 날 수 있었으며 오늘 이 땅우에 부유하고 문명하고 찬란한 인민의 락원을 자기의 힘으로 건설할 수 있게 되였다.

우리 혁명에서 농업 문제, 농민 문제는 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에서 농업, 농민 문제는 복잡하며 그의 해결의 정확 여부는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우리 당은 농민 문제 해결의 첫 걸음으로서 해방 직후 짧은 기간 내에 토지 개혁을 철저히 수행하였으며 레닌의 협동화 리론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전후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순조롭게 완성하고 농업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켰다.

농업 협동화의 완성에 뒤'이어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가 급속히 추진된 결과 오늘 기술-기계 력량이 강화되였으며 우리의 농촌은 과학과 기술로 농사를 짓는 흉풍을 모르는 농촌으로 되였다.

우리 당은 혁명 발전의 현 단계에서 공업과 농업에 대한 지도 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나라의 생산력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발휘케 하는 관건적 문제로 제기하고 이를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철저히 근거하여 창조적으로 해결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우리 당은 대안의 사업 체계와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를 창조함으로써 변천된 새 환경에 상응하게 인민 경제에 대한 독창적인 새로운 관리 체계와 운영 방법을 능숙하게 해결하였다.

대안의 사업 체계와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는 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강력히 추동하는 커다란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인민 경제의 보다 급속한 발전을 위한 광활한 길을 열어 놓았다.

개편된 새로운 지도 체계와 경제 관리 체계의 근저에는 우리 당의 군중 로선이 놓여 있으며, 거기에는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창조된 청산리 정신과 청산리 방법이 훌륭히 구현되여 있다.

청산리 정신과 청산리 방법이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과 사업에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지도와 대중을 접근시키고 생산자들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더욱 높이고 광범한 근로자들을 기업 관리에 인입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동지적으로 협조하고 집단이 하나로 움직이는 공산주의적 기풍이 확립되게 되였다.

전후 사회주의 건설에서 달성한 기적적인 성과들은 우리 당의 총 로선인 천리마 운동의 발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운동인 천리마 운동은 당과 수령의 주위에 하나로 튼튼히 뭉친 우리 인민의 위대한 창조력의 발현이며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최대 한도로 촉진시키기 위한 전

인민적 운동이다.

우리 당은 이 위대한 운동을 튼튼히 틀어 잡고 전진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 개조하는 위대한 력사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경제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끝나고 사회주의 건설이 촉진됨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에 상응한 정신 도덕적 준비에서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공산주의 교양이 혁명 전통 교양과 밀접히 결부됨으로써 근로자들의 사상 생활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 났으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 미풍이 전 사회를 지배하게 되였고 우리 사회는 동지적인 신뢰와 화목으로 충만되고 혁명적 정열로 들끓는 하나의 대가정으로 되였다.

문화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며 우리 당이 해방 후 이 분야에서 달성한 성과는 실로 거대하다.

맑스-레닌주의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제도는 발전된 생산력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물질 및 정신 문화를 소유함으로써만 자기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며 공산주의 사회에로 성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인민 교육 사업을 개선 강화하며 근로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제고하며 민족 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거대한 성과가 이루어졌다.

해방 후 우리 인민이 달성한 가장 귀중한 성과들 중의 하나는 자체의 민족 간부를 대량적으로 육성해 낸 것이다. 당은 가장 어려운 전쟁 시기에도 전후의 방대한 전망을 예견하고 민족 기술 간부 양성에 커다란 관심을 돌려 왔으며 그의 해결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다.

오늘 조선 인민은 수천 년의 자기의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개화기에 처하여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의 웅대한 과업인 7 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세 번째 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7 개년 계획이 수행되면 우리 인민은 현대적 공업과 현대적 과학 기술에 토대한 농업과 고도로 발전된 과학 문화를 소유하게 될 것이며 더욱 유족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 앞에 펼쳐진 휘황한 전망은 우리 인민을 새로운 영웅적 투쟁에로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미제의 예속 하에서 신음하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새로운 투쟁의 신심을 안겨 주고 있다.

우리 조국은 분렬된 채 남아 있다. 우리 앞에는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을 몰아 내고 분렬된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할 성스러운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 미제의 강점 하에 있는 남조선은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대혼란 상태에 있으며 인민들은 무권리와 극도의 빈궁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오늘의 남조선의 참상은 미제의 통치 결과에 빚어진 것이며 미제는 남조선의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전체 조선 인민의 불구 대천의 원쑤다.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한 미제의 침략 도구로서의 현 남조선 정권의 본질은 달라질 수 없으며 남조선의 파국적인 사태와 남조선 인민들의 참담한 처지에는 그 어떠한 개변도 있을 수 없다.

지난 18 년간 남조선에 빚어진 민족적 비극은 외세 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민족 자주, 자립의 길만이 민족 갱생의 길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민족 해방 혁명을 완수하고 남조선 인민들을 오늘의 참상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을 몰아 내고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정부를 수립하며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하는 데 있다.

우리 민족은 한 선조의 혈통을 이은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와 슬기로운 애국 전통을 가진 단일 민족이다. 그 어떠한 원쑤도 우리 민족을 분렬할 수 없다.

우리 인민은 미 제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 내고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남조선을 재침하려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단호히 반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특히 오늘 세계 반동의 원흉인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고 제국주의자들이 《반공》 소동을 강화하고 있는 조건에서 인민들의 혁명적 의식과 계급 의식을 마비시키려는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을 결정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맑스-레닌주의 원칙과 순결성을 고수하며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레닌의 기치를 높이 들고 수정주의를 반대하며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이며 교조주의를 배격할 것이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맑스-레닌주의의 원칙과 모쓰크바 선언과 성명에 확고히 기초하여 쏘련과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 것이며 평화와 민족적 해방, 민주주의 및 사회적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인민들의 투쟁에 계속 굳은 련대성을 보낼 것이다.

레닌주의는 백전 백승의 혁명적 사상이다. 위대한 레닌의 사상은 우리의 앞길을 밝혀 주고 있으며 그것은 영원히 인류의 심장 속에 살아 있을 것이다. 미래는 공산주의에 속하며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다.

출로는 민족의 자주 통일에 있다

오늘 남조선은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파국에 처하여 있다.

현 통치 제도에 대한 대중의 불만과 참을 수 없는 생활고에서 벗어 나려는 대중의 열망은 날을 따라 비등하고 있다. 첨예화되고 있는 식민지 통치의 위기에 직면하여 불안하여진 미국의 지배층들과 남조선의 통치배들은 조석으로 언동을 달리하면서 《군정》이요, 《민정》이요 또는 《과도적 합작》이요 하며 떠들고 있다.

그러나 경험이 실증한 바와 같이 이로부터 남조선 인민들이 기대할 그 아무 것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바야흐로 남조선에서는 미국의 정객들이나 남조선의 군사 통치배들과 정상배들의 소동과는 다른 목소리가 더욱더 강하게 울리고 있으며 다른 움직임이 더욱더 힘차게 일어 나고 있다.

최근 남조선 출판물들에는 현 남조선 사태의 원인이 외세의 예속과 외세 의존에 있다고 개탄하며 민족의 자주 정신과 자주권을 강조하는 주장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민족의 운명에 대한 우려로부터 출발하였으며 남조선 현실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이러한 주장을 지지 환영한다.

무엇 때문에 남조선이 오늘과 같은 파산과 몰락에 처하게 되였으며 남조선 인민들이 오늘과 같은 도탄에 빠지게 되였는가?

남조선 인민들이 오늘의 불행에 처하게 된 것은 남조선이 미제 침략 세력의 예속 하에 있는 데 있으며 단일한 민족으로서 한 국토 내에서 통일적인 경제적 련계와 동일한 문화와 풍습을 가지고 살아 오던 우리 민족이 분렬된 데 있다.

우리 조국이 아직 통일되지 못하고 미증유의 민족적 재난을 겪고 있는 것도 조국의 절반 땅이 외래 제국주의자들에게 강점 당하고 민족의 자주권이 유린 당하고 있는 데 있다.

문제는 바로 북조선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조선에서 완전한 민족적 자주권을 실현하고 남북의 자주적인 힘으로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는 데 있다. 이것이 남조선에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며 자유와 해방을 달성할 유일한 출로이다.

원래 모든 민족은 평등하며 자기 운명을 자신이 결정할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어떤 민족이나 완전한 정치적 자결을 실현하며 자기 권리를 자기 수중에 장악하고 행사함으로써만 독립과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약소 민족들이 장구한 기간에 걸친 피의 투쟁 속에서 얻은 진리이다. 모든 민족의 독립 운동, 민족 해방 투쟁의 력사가 이것을 명백히 보여 주었다.

일본 제국주의의 가혹한 민족적 억압과 착취와 멸시를 당하여 온 조선 인민이 해방 후 한결같이 념원한 것은 조국의 완전한 자주 독립의 실현이였다. 그리하여 남북 조선 인민은 다 같이 빼앗겼던 자기의 주권을 도로 찾고 독립되고 부강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열화 같이 일어 났다.

그러나 미제의 남조선 강점으로 국토는 량단되였으며 같은 혈통을 이은 한 민족이 벌써 18 년간이나 상반되는 두 길을 걸어 오고 있다.

오늘 조선의 북과 남의 판이한 현실은 자주와 예속의 상반되는 길이 각각 어떤 결과를 가져 오며 어느 길이 민족의 독립과 번영의 길인가에 대한 명백한 대답으로 된다.

해방 후 조선 인민은 북조선에서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 쥐고 자주적인 발전의 길을 개척하였다.

북조선 인민들은 자기들의 총의에 의하여 인민 정권을 수립하였으며 자기들의 오랜 념원인 토지 개혁을 비롯한 민주 개혁을 실시하였으며 일본 제국주의 잔재를 숙청하고 민주주의 독립 국가 건설에 힘과 지혜를 다 바치였다.

해방적 사명을 띠고 북조선에 진주하였던 쏘련 군대는 조선 인민 자신이 자기의 손으로 독립 국가를 건설하도록 도와 주고 곧 철수하였다.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이 조선 인민에게 강요한 전쟁 시기 조국의 자유 독립을 고수하기 위한 조선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도와 주기 위하여 출전하였던 중국 인민 지원군도 조선에서 정전이 실현된 후 철수하였다.

북조선에 수립된 인민 정권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며 시종 일관 민족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북조선 인민들은 자주권을 튼튼히 틀어 쥐고 있기 때문에 나라의 독립을 확고히 보장하고 있으며 경제와 문화를 성과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는 자력 갱생의 정신으로 일제와 미제 침략자들이 파괴한 경제를 복구하였으며 푼전을 아껴 가며 우리 내부의 힘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북반부에 자립적 민족 경제의 확고한 토대를 닦아 놓았다.

우리는 강력한 공업을 건설하고 지난날 외래 침략자들이 략탈하여 가던 우리 나라의 풍부한 원료 원천을 개발하여 우리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을 잘 살게 하는 데 리용하고 있다.

자립적인 민족 경제를 건설하여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제 힘으로 필요한 기계와 설비들을 생산하여 새로운 공장, 기업소들을 건설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북조선은 원래 경지가 적고 토지가 척박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공업의 힘에 의거하여 관개를 하고 기계를 대주고 전기를 보냄으로써 농산물 생산을 증대시켰으

며 식량도 자급 자족하고 있다.

우리의 이 튼튼한 자립 경제는 정치적인 자주권의 확고한 담보로 되는 것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당당한 독립 국가로서 자기의 모든 정책을 자주적으로 규정하며 완전한 평등과 호상 존중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정치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는 우리 조국을 침략하고 우리 인민을 예속화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견결히 반대하여 투쟁하며 그 누구든지 우리의 민족적 권리와 존엄성을 유린하거나 모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원쑤들은 마치 우리 공화국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예속》되여 있는듯이 떠벌리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미군의 남조선 강점을 합리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중상과 비방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우리가 사회주의 진영의 한 성원이며 모든 사회주의 나라들이 공통한 리념과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함께 나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약육 강식의 승냥이 법칙에 기초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호상 관계와는 달리 사회주의 국가들의 호상 관계는 평등과 자주권의 존중, 내정 불간섭, 호상 협조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는 누구의 지시나 명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의 민족적 리익과 세계 인민의 공동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문제를 자신의 결심에 의하여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벗들과 단결하고 긴밀히 협조하며 그들의 경험에서 필요한 것을 섭취하지만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따르지 않는다.

우리 나라와 형제적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경제 관계도 역시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는 형제 국가들로부터 경제 기술적 원조도 받았으며 다른 나라와 무역도 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원조》와는 달리 원조받는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고 그 나라의 자립적 민족 경제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우리는 형제 국가들의 원조를 우리 자신이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우리의 인민 경제를 더욱 급속히 발전시켰으며 이제는 자기 힘으로 자기 살림살이를 꾸려 나갈 수 있게 되였다.

우리의 무역은 우리에게 없고 필요한 것을 사 오고 많은 것을 수출함으로써 유무상통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복무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나라에도 경제적으로 예속되여 있지 않으며 더우기나 경제적 관계로 하여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 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분야에서 자주적인 발전의 길을 걸은 북조선에서는 과거 외래 침략 세력의 예속으로 인하여 조성되였던 모든 락후성과 빈궁이 이미 청산되였으며 그 흔적마저 사라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력사적인 전변이 일어 났으며 민족적 번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조선 인민들은 모든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고 있으며 생활고의 위협에서 완전히 해방되였다. 그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기능과 지식에 따르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서는 실업이 문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동력이 부족할 정도이다.

북조선 인민들은 누구나 병 나면 무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자녀들을 무료로 각급 학교에서 공부시키고 있다.

북조선 인민들은 아직 부유하게 산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의식주에 대한 걱정을 모르고 살고 있으며 그들의 생활은 계통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과거 이국의 산야에서, 일제의 감옥과 교수대에서 쓰러지면서도 《조선 독립 만세!》를 힘 있게 부른 우리 선렬들이 념원하던 그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런데 남조선에서는 사태가 어떻게 되였는가?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한 후 남조선에 들어 온 미군은 처음부터 조선 인민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모든 권력을 틀어 쥔 정복자로 군림하였다.

그들은 상륙 즉시 조선 인민 자신이 창건한 인민 위원회들을 강제 해산시키고 남조선 전역에 군정을 선포하였으며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강행하였다.

그들은 전 조선을 강점하고 조선 민족의 독립을 말살하려고 범죄적인 침략 전쟁을 도발하였으며 전후 계속 남조선의 최고 통치자로 전횡을 다하고 있다.

지난 18 년간 남조선에서 식민지 통치 기관의 간판이 이러저러하게 달라졌으나 이 모든 것은 미 군정의 연장이며 변종 이외 아무 것도 아니다. 남조선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 자결의 신성한 권리는 미국 침략자들에 의하여 유린 당하고 남조선은 미국의 식민지로 전락되였다. 미국의 위정자들과 선전 기관들은 남조선이 마치 자립적인 《주권 국가》인듯이 사태를 묘사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외래 침략 군대가 그 령토를 강점하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판국에서 그 어떤 자주권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만약 주권 국가이라면 정권이 그 민족의 수중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조선의 소위 《대한 민국 정부》는 근본 조선 인민이 세운 것이 아니라 유엔의 간판 밑에서 미군의 총검에 의하여 날조되고 강요된 것이다. 그것은 미국 침략자들의 정치적 위장물에 불과하다. 오랜 식민지 정책의 《경험》을 가진 미 제국주의 침략 정책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식민지 약소 국가에서 저들의 괴뢰들로 《정권》을 조작하고 그것을 통하여 저들의 침략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남조선에서도 사태가 례외로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가장 로골적인 형태에서 그것이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대의제 정부》의 표본으로 미국 사람들이 떠들던 《리 승만 정부》도 그 후의 모든 남조선 《정부》도 미군의 총검의 비호 하에 미제가 조작한 것임은 폭로된 지 오래다.

현 남조선의 군사 《정권》도 미 제국주의자들이 자기의 식민지 통치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하여 미국 정보국의 오랜 특무인 박 정희, 김 종필 도당을 조종하여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남조선 《정부》가 미군의 비호 없이는 하루도 존속될 수 없으며 미국의 지시 없이는 그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괴뢰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만약 주권 국가라면 적어도 그 나라는 대외적 관계에서 평등권을 가져야 할 것이며 자기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조선 《정부》는 미제의 요구대로 조선 인민의 신성한 권리와 나라의 재부를 떠 넘겨 주고 있을 뿐이다.

우선 남조선 《정부》는 미국과의 사이에 미군이 남조선 전 지역 그 어데나 장기 주둔할 것을 미국에 《허여》하는 《한미 호상 방위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유체 무체》를 막론하고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남조선의 모든 재산을 《미국 정부의 요구에 의하여 그 소유를 인정》하며 미국 사람들의 재산 상 손해까지도 남조선이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한 《한미 재정 이양 및 재산 이양에 관한 협정》과 《한미 우호 통상 및 항해 조약》을 체결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치외 법권적 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온갖 전횡을 자행하고 있다.

이른바 《대전 협정》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미군인에 의한 범죄는 미군 당국만이 재판할 수 있》으며 《미군인에 의한 한국인의 재산 상 손실 또는 인명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미군의 일방적 통고로써 처리하게 되여 있다. 이러한 굴욕적인 질서는 식민지나 조차지 외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미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남조선의 재산을 《관심》만 있으면 가지게 되여 있으나 남조선 인민들은 미군의 우심해지고 있는 만행에 의하여 생명을 잃고 재산을 강탈 당하여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것이다. 이러한 치욕적인 관계가 과연 자주권과 어떻게 량립할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미군은 남조선 군대의 통수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60 여만의 방대한 남조선 군대는 민족 보위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으며 오직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 인민을 탄압하며 침략을 감행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외래 침략자들에 의하여 자주권이 유린 당하고 독립을 요구하는 인민들이 학살 당하며 한 나라의 주권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 통수권이 전적으로 강점군에게 속해 있는 곳에서 과연 그 어떠한 주권 국가의 흔적이라도 찾아 볼 수 있는가?

어떤 민족이든지 완전한 자주권을 보장하려면 경제적으로 자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조선은 정치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미국에 완전히 예속되여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미군의 강권으로 남조선의 재부를 수탈하고 침략적인 《원조》를 통하여 남조선의 경제 명맥을 틀어 쥐고 있으며 남조선 《정부》의 모든 경제 재정 활동을 통제하고 있다.

우선 남조선 《정부》의 재정 예산 세입의 근 절반이 미국 《원조》에 의한 《외자》로 충당되고 있으며 《한미 경제 및 기술 협정》에서 공개적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남조선 《정부》는 예산 편성으로부터 그 지출은 물론 지출 항목의 일시적인 융통까지도 미국 《원조》 감독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남조선 《정부》는 미국의 《원조》 없이는 그리고 미국 상전의 승인이 없이는 예산도 편성할 수 없으며 재정 지출도 마음 대로 못 하고 있다. 남조선 《정부》의 경제 재정 활동은 미제의 침략적 목적을 위하여 인민을 수탈하며 군사비를 확장하고 군사 시설을 증설하는 데 복무하고 있다. 남조선의 대외 무역도 완전히 미국에 예속되여 있으며 남조선의 경제 생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이다. 해마다 수입 초과가 수출의 20 배에 달하는 참혹한 사실은 이를 너무도 명백히 말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상품과 자본 시장으로, 원료 수탈지로 전변시켰다. 그들은 《원조》를 미끼로 남조선 공업을 완전히 예속시키고 민족 산업을 파괴 몰락시켰다. 그들은 잉여 농산물의 강매와 가혹한 수탈로 남조선 농촌을 황폐화시켰다. 그런데 미제의 추동 하에 군사 통치배들은 과거 36 년간 조선 인민을 억압하고 착취한 일본 독점 재벌들까지 또다시 공공연히 남조선에 끌어 들이고 있다. 경제적으로 미국에 예속되여 있기 때문에 남조선 공업과 농업이 질식되고 물산은 고갈하여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있다. 남조선이 미제에 예속되여 있기 때문에 나라의 북반부에 강력한 민족 경제가 있으나 이것이 남조선 경제의 부흥과 민생 문제의 해결에 리용되지 못 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의 민족 문화를 말살하고 미국식 생활 양식을 부식시켜 남조선에서 조선 민족의 모든 우수한 것을 병 들고 시들어지게 하고 있다. 인종주의를 저들의 침략 정책의 주요한 사상적 무기로 삼고 있는 미제 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조선 사람을 천대 멸시하며 온갖 모욕을 다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은 아무런 권리도 없는 식민지 노예의 처지에 있으며 무서운 빈궁과 기아에 신음하고 있다.

수백만 실업자와 절량 농민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으나 범죄적인 산아 제한에 대한 소란스러운 설교와 아국 땅에 이민의 명목으로 동포들을 종신 노예로 팔아 넘기는 외에 아무런 대책도 없다.

남조선 출판물들이 오늘의 현실을 초래한 것이 《선의》로 가장한 《미국의 대한 정책》이며 《미국 원조에 대한 의존》이라고 지탄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바로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이 남조선에 오늘과 같은 참담한 현실을 빚어 내였다.

지난 18 년간의 력사와 남북의 판이한 현실은 민족 자결, 민족 자주의 길만이 자유와 독립의 길이며 남조선이 자주, 자립하는 길이 오늘의 참담한 처지에서 벗어 나는 유일한 출로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남조선이 자주, 자립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남조선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장본인이며 남조선

인민들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 내야 한다. 외래 침략 군대를 자기 나라에 두어 두고는 어떠한 독립도 보장할 수 없다.

미제 침략자들이 남조선에 하루라도 더 머물러 있으면 있을수록 남조선의 파국적 위기는 더욱 극심해질 것이며 남조선 인민들은 더욱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의 기만 책동과 그에 아부 추종하는 괴뢰 도당들의 매국 행위를 철저히 폭로 분쇄하고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 내야 한다.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한 《군정》이건 《민정》이건 아무 것도 달라질 것이 없으며 남조선 정권에 누가 들어 앉든 괴뢰 《정권》으로서의 그 본질은 변할 수 없다.

진정한 자주권을 가지자면 외래 침략자들과 그에 아부 추종하는 반역자들을 몰아 내고 인민들 자신이 발동하여 자기의 진정한 의사를 대표하며 자기의 권리를 수호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자주 정부를 수립하여야 한다. 인민의 정권이 수립됨으로써만 진정한 독립과 자유가 보장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적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자주 정부 수립을 위하여 남조선 인민들은 모든 민주주의적 권리를 쟁취하여야 하며 특히 민주주의적 정당 활동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

부패하고 정권욕에 사로잡힌 정상배들은 민족과 인민을 위하여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인민 대중 속에서 인민 대중이 요구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남조선 인민들은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자유와 독립을 실현할 수 있다.

정치적 자주권은 경제적 자립이 없이는 보장될 수 없다.

경험이 보여 준 바와 같이 외세 의존은 오직 파멸을 가져 올 뿐이다.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의 경제적 예속화 정책을 반대 배격하고 자생 자결하여야 하며 남조선의 파괴된 경제를 복구 발전시키기 위하여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를 실현하도록 투쟁하여야 한다.

남조선이 외래 침략 자본의 예속에서 벗어나 북조선과 경제적 련계를 가지고 남북이 호상 유무상통한다면 남조선의 경제적 파국을 능히 수습할 수 있으며 민생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남조선도 북조선과 같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하여야 한다.

남조선도 북반부와 같이 자주적이며 자립적이여야만 그리고 이러한 기초 우에서만 외세의 간섭이 없이 우리 민족의 자주적 힘에 의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 수 있으며 완전한 독립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력사 상 외래 침략 세력에 의존하여 민족적 독립을 달성한 전례는 없다.

척양척왜(斥洋斥倭)를 부르짖으며 자본주의 렬강의 침략을 반대하여 궐기한 우리 조상들의 투쟁은 사대주의자들에 의하여 결실을 맺지 못 하였으며 외래 침략자들에게 아부 굴종한 매국노들에 의하여 우리 민족이 망국의 비운을 맛보게 되였던 그 울분은 지금도 우리의 가슴에 서리여 있다.

또한 구미 렬강의 《선심》을 바라며 《청원》이나 《애걸》로 《독립》을 달성하려던 뭇 정객들의 모든 시도가 제국주의 강도들의 우롱물로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지난날의 우리의 침통한 력사의 교훈은 오늘도 얼마나 랭정하게 진실을 말하여 주는가!

우리는 이 쓰라린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하며 외국의 간섭이 없이 우리 힘으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

무엇 때문에 조선 인민이 자기 조국의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지 못 하겠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 민족의 내부 문제를 양코들의 간섭에 맡기겠는가.

조선 민족은 유구한 력사와 문화의 전통을 가진 슬기로운 민족이며 장구한 기간 자기의 독립 국가를 지켜 온 용감하고 고매한 기개를 가진 민족이다.

조선 인민은 자기 힘으로 능히 자기 조국을 통일할 수 있으며 반드시 통일하여야 한다.

조국의 통일 문제는 시비를 운운할 론쟁 문제가 아니며 우리 민족 지상의 임무이다.

남조선의 일부 사람들은 우리 나라의 자주적 통일이 실현되면 남조선이 북조선에 《먹힌다》고 하면서 그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것은 통일을 방해하는 자들의 구실에 불과하다.

우리 나라의 통일 문제는 누가 먹고 먹히는 문제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일시적으로 분렬된 우리 민족이 제국주의 기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 나 민족적 통일을 회복하는 문제이다.

우리 당이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위한 중간 걸음으로서 남북 간의 련방제의 실시를 제의한 것도 우선 전 민족의 리익을 위하여 필요한 문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하며 남북의 리해를 촉진하며 조국 통일의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자는 데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우리는 어떤 정치 형태를 선택하는가는 인민의 의사에 맡기며 남북 조선 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할 것을 주장하며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나라가 망국의 비운에 처하였던 지난날에도 오직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피 흘려 싸웠으며 오늘도 우리는 이 숭고한 위업을 위하여 굴함이 없이 투쟁하고 있다. 우리의 념원은 오직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 내고 그의 식민지 통치 기반에서 남조선 동포들을 구원하며 통일된 조국에서 전 민족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자는 것 뿐이다.

남조선 인민들이 오늘의 도탄에서 벗어 나는 길은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 내고 민족의 자결과 자주를 실현하고 이 기초 우에서 조국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데 있다.

지금은 다만 현실에 대하여 개탄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승리는 오직 투쟁을 요구하며 또한 투쟁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

남조선의 전체 인민들은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 내기 위하여 더욱더 용감히

투쟁하여야 한다.

민족적 량심이 있고 우국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함께 유린된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짓밟힌 민족의 자주권을 찾기 위하여 이 성스러운 투쟁에 나서야 한다.

남조선의 모든 애국 력량은 민족 자결, 자주, 자립을 위하여 반미 구국 투쟁의 기치 하에 단결하여야 한다. 단결은 힘을 십 배 백 배로 강화한다. 단결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의 모든 책동을 반대 배격하며 침략자들이 이 땅에서 빠져 나지 못 하도록 적극적으로 투쟁하라!

미제와 그 주구들은 지금 궁지에서 빠져 나오려고 헤매고 있으며 대중의 투쟁을 두려워하고 있다.

단결된 인민의 힘은 원쑤의 어떠한 야성도 무너뜨릴 수 있다. 이것은 이미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경험이 실증하였다.

3천만 인민의 단합된 힘은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을 몰아 내고야 말 것이며 반드시 그의 식민지 통치를 끝장 내고야 말 것이다. 남조선 땅에도 려명은 밝아 오고야 말 것이며 이 땅에 통일 독립의 기'발이 휘날릴 그 날은 오고야 말 것이다.

(《로동 신문》 사설)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은 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번영의 길이다

최근 남조선에서는 미국의 《대한 정책》과 미국 《원조》가 남조선에 가져 온 파멸적 후과를 개탄하면서 외세 의존을 배격하고 나라의 자주적 발전과 경제의 자립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 가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인민들의 빼저린 생활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정당한 요구로서 우리는 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미 본지 사설에서 민족의 자주적 통일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론한 바 있다. 오늘 우리는 남조선의 경제적 파국을 수습하며 나라의 진정한 독립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는 데서 기초로 되는 민족 경제의 자주적 발전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론하려 한다.

어떠한 민족을 막론하고 경제의 자립적 기초가 없이는 독립 국가를 건설할 수 없으며 나라의 부강 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 수 없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이미 1947년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자기 민족의 자립적 경제의 기초를 확립하여야 하며… 자립적 경제의 기초가 없이는 우리는 독립도 할 수 없고 건국도 할 수 없고 또한 살 수도 없는 것이다.》

경제적 자립은 정치적 독립의 기초로 된다. 경제에서의 외세 의존은 정치에서의 외세 의존을 가져 오며 경제적 예속은 정치적 예속을 가져 온다.

우리는 모든 민족이 평등하고 자주적이며 자기 운명을 자기 자신이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만일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 한다면 어떻게 민족의 평등권과 자주권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을 부인하는 자들은 실제에 있어서 민족들의 평등권과 자주권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바로 제국주의자들이 자기의 침략적 목적을 위하여 《원조》를 미끼로 다른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며 나아가서는 그 나라들의 독립과 주권을 유린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떠들고 있는 《구라파 공동 시장》이니, 《대서양 공동체》니 또는 《세계 경제의 통합》이니 하는 것들도 모두다 이러한 《공동체》들에 망라되는 약소 국가들의 정치 경제적 독립을 말살하고 이 나라들을 제국주의 렬강의 지배에 복종시키려는 침략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외래 제국주의에 예속된 민족은 외견 상의 정치적 독립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제국주의자

들에 의한 정치적 예속과 략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오직 자립적 민족 경제를 가진 나라만이 다른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서 경제 관계를 수립할 수 있으며 당당한 독립 국가로서 세계의 대소 국가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국제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다.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축성하지 않고는 국가의 륭성을 기할 수 없으며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없다. 자체로 자기 나라 살림살이를 꾸려 나갈 만한 밑천이 없이 어떻게 문명하고 부강한 독립 국가를 건설할 수 있겠는가? 자기 민족의 내부 자원과 내부 력량을 동원하지 않고 어떻게 남의 힘에 의거하여 잘 살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아직도 외세에 의거하여 부강한 독립 국가를 건설한 실례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의 《원조》에 의거하여 인민의 복리를 증진시킨 실례를 알지 못 하고 있다.

사실 상 자립적 민족 경제를 가지지 못 한다면 과학도 기술도 문화도 발전시킬 수 없으며 현대의 문명 세계에서 유리된 락후한 민족의 운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발전된 민족 경제를 건설함으로써만 문명한 민족으로서 현대 사회의 모든 복리를 누릴 수 있으며 인류 문화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외세 의존의 길, 제국주의의 《원조》에 의존하는 길은 예속의 길이며 멸망의 길이다. 자주적 발전의 길,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길은 국가적 독립을 보장하며 민족의 륭성과 번영을 보장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이다.

남북 조선의 판이한 두 현실은 이에 대한 가장 뚜렷한 증거로 된다.

과연 《선의의 조력자》로 자처하는 미국의 《대한 정책》이 남조선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 왔는가? 미국의 소위 《원조》가 남조선 인민들에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식민지적 예속과 략탈,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파국, 전고미문의 민생고와 사회적 부패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과 남조선 반동 세력의 매국 정책으로 말미암아 어제'날의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오늘은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원조》를 통하여 남조선의 일체 경제 생활을 통제하고 있으며 남조선 경제를 미국의 군사적 부속물로 만들었다. 남조선 지배층은 일련의 매국적 협정들에 의하여 미국 독점 자본의 침입에 자유로운 길을 열어 주었으며 미국 정부에 남조선 경제에 대한 무제한한 지배권을 넘겨 주었다.

남조선 《정권》의 재정 경제 활동의 기본인 예산부터가 미제 침략자들의 손아귀에 완전히 쥐여 있다. 남조선의 재정 예산에서 세입 총액의 근 절반은 미국 《원조》에 의한 《외자》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다. 남조선 《정부》는 미국 상전의 사전 승인이 없이는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고 자금을 지출하지도 못 한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원조》를 통하여 남조선의 재정 예산과 함께 금융 기관들까지도 자기 수중에 틀어 쥠으로써 남조선 《정부》의 재정 경제 활동을 좌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기관들과 기업체들의 자금을 통제하고 있다. 《한국 은행》을 비롯한 남조선의 은행들과 일체 금융 기관의 대부 자금 원천에서 미국 《원조》에 의한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또한 《원조》로써 남조선 공업을 미국의 원료와 자재에 얽어 매여 놓았다. 남조선은 국내 자원을 개발하여 필요한 자재와 원료를 해결하지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자재, 원료를 무역을 통하여 외국에서 구입할 만한 자체의 밑천도 가지고 있지 못 하다. 그리하여 남조선은 강재, 목재, 세멘트를 비롯한 중요 원자재의 대부분과 유연탄, 원면, 인견사, 가성소다 등 원료의 거의 전부를 미국 《원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단 이 《원조》가 중단되기만 하면 공업도, 운수도 움직일 수 없는 형편이다.

남조선의 대외 무역도 역시 미국이 독점하고 있다. 남조선 대외 무역에서 수입은 수출의 20 배에 달하며 수입 총액의 80%는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남조선 시장은 바다를 건너 온 미국 상품으로 흘러 넘치고 있다.

결국 남조선에서는 재정 예산도, 기업 자금도, 중요 자재와 원료도 모두다 미국의 손아귀에 쥐여 있으며 대외 무역도, 국내 시장도 미국이 독점하고 있다. 남조선의 경제 생활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은 미국 정부의 대표 기관으로서 미국의 《원조》를 관리하고 있는 《주한 미 경제 협조처》인 것이다.

미국 침략자들에 의하여 조종되고 있는 남조선 경제가 남조선 인민들의 리익과 우리 민족의 리익에 부합되게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남조선 경제는 전적으로 미 제국주의자들의 군사 침략 정책과 식민지적 략탈의 목적에 복종되고 있다.

남조선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지배 하에 들어 간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100억 딸라 이상에 달하는 미국 《원조》를 받아 왔다. 그런데 이 《원조》의 대부분은 직접적인 군사 《원조》이다.

60 여만에 달하는 방대한 남조선 군대가 민족 보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 제국주의의 침략적 목적을 위하여 복무하는 고용 군대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 《원조》란 바로 미 제국주의자들이 전조선을 침략하고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군사 기지를 유지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의 일부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이러한 침략적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미국 군대보다 훨씬 값싼 남조선 군대를 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다. 그들은 수 많은 남조선 청장년들을 괴뢰 군대에 강제로 징모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남조선 인민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자기들의 군사비 지출을 엄청나게 《절약》하고 있다. 사실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괴뢰군 1 개 사단을 유지하는 데는 미군 1 개 사단을 유지하는 비용의 25 분의 1 밖에 들지 않는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통치는 남조선 경제를 파괴하고 수백만의 근로자들을 실업에 빠뜨렸는바 이것은 그들에게 값싼 고용 군대를 확보하여 주는 원천으로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침략적 목적을 위하여 방대한 괴뢰

군대를 유지하고 남조선 인민들에게 무거운 군사비의 부담을 들씌우면서도 마치 그 어떤 《원조》를 주고 있는듯이 떠벌리고 있다.

남조선은 60 여만의 청장년들을 미국 침략자들의 대포'밥으로 제공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년간 총 생산액의 3 분의 1을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경제 건설을 위한 여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소위 《순 경제 원조》라는 것도 남조선을 미국에 예속시키고 남조선의 자원과 생산을 미국의 군사적 목적에 동원하기 위한 밑천에 지나지 않는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 민족 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기계 설비나 생산 시설들은 애당초 들여 오지도 않는다. 그들이 가져 오는 《원조》 물자란 남조선 경제를 얽어 매기 위한 일부 자재와 원료들, 남조선 인민 대중의 생활과는 인연이 없는 양담배, 화장품 등을 비롯한 사치품들이다.

남조선 지배층은 이러한 《원조》의 대'가로 나라의 주권과 경제의 명맥을 송두리째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넘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원조》총액보다 훨씬 많은 재부를 공물로 제공하였다. 1962년까지 미국은 남조선에 33억 딸라의 《경제 원조》를 주었는데 한편 이 기간에 그들이 남조선의 재부를 략탈한 액수는 극히 제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80억 딸라에 달하였다. 이것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준 것보다 2.4 배나 더 많은 것을 남조선으로부터 빼앗아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케네디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대외 원조 교서》에서 《원조》가 《우리의 국가적 리익에 주는 기여는 명백히 그 비용보다 크다.》고 하면서 그것이 좋은 돈'벌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미국 독점 자본을 남조선에 끌어 들이고 나라의 주권과 부원을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팔아 넘김으로써 한 줌도 못 되는 남조선의 반동적 매국 세력이 치부하고 있다. 미국 《원조》의 적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 친미 매국 세력을 육성하는 데 돌려지고 있다. 공업 부문에서만도 남조선 기업소 총수의 1%에 불과한 예속 자본가들의 기업체들에 공업 총 생산액의 40%가 집중되어 있다.

미국 독점 자본과 예속 자본의 부단한 압박으로 인하여 남조선에서 민족 공업 발전의 길은 완전히 폐쇄되였으며 일제로부터 넘겨 받은 공업의 식민지적 편파성과 락후성은 더욱 심하여졌다.

남조선의 국민 소득 총액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 분의 1에 불과하며 경제적 자립의 기초인 기계 제작 공업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전략 물자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부 광산들을 채굴하고 있을 뿐 남조선의 지하 자원은 개발되지 못 한 채 파묻혀 있다. 남조선에 약간 있다고 하는 방직 공업과 식료품 공업조차 그 대부분은 군수 생산에 종사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의 비호를 받고 있는 예속 자본가들의 수중에 있다.

남조선 공업은 자기의 원료 기지를 가지고 있지 못 하며 기간적인 중공업 부문들을 가지고 있지 못 하는 기형적 공업으로서 완전히 미국에 예속되여 있다.

더욱더 심각하여지는 원료와 자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중소 기업은 부단히 파산 몰락하고 있다. 수 많은 중소 기업체들이 폐쇄되였으며 남아 있는 기업체들도 그 60% 이상이 조업을 단축하거나 정지하고 있다.

침략적 미국 《원조》로 인하여 만신창이된 남조선 공업 생산은 일제 시기의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 하고 있다.

외세에 추종한 남조선 매국 집단은 남조선의 공업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농업마저 여지 없이 령락시켰다. 광범한 농민 대중은 여전히 봉건적 토지 소유 제도 하에서 가혹한 착취를 당하고 있다. 남조선 통치자들은 농촌 경리에 투자는 하지 않고 농촌을 밑창이 나도록 긁어 냈다.

관개 공사와 치산 치수 사업을 전혀 하지 않은 결과 국토는 날로 황폐되여 가고 있다. 남조선 산림 총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300만 정보가 벌거숭이로 되였으며 이미 있던 관개 시설마저 완전히 파괴되였다. 이리하여 해마다 많은 비옥한 땅이 백사장으로 화하고 있으며 농토의 절반 이상은 복구 개량하지 않으면 사실 상 수확을 낼 수 없는 황무지로 변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 농민들로부터 10만 정보 이상의 땅을 군용지로 빼앗아 냈다.

공업이 파산되고 농촌 경리가 극도로 령세한 조건에서 남조선 농촌은 어떠한 기술적 진보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지 못 하며 농업 기술은 중세기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

농업 생산력의 파괴와 침체, 미국 잉여 농산물의 부단한 압박은 생산의 심한 쇠퇴를 가져 왔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잉여 농산물을 끌어 들여 남조선의 농산물 가격을 생산비 이하로 떨어뜨림으로써 농민들의 경리를 파탄시키고 농업 생산을 극도로 위축시켰다. 알곡 생산은 해방 전에 비하여 3 분의 2로 감소되였으며 목화 생산은 거의 완전히 없어지고 축산과 잠업은 쇠퇴 일로를 걷고 있다. 이리하여 지난날 우리 나라의 곡창이였던 남조선이 지금은 해마다 500만～700만 석의 미국 잉여 량곡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만성적 기근 지대로 전변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 농업을 이 지경에 빠뜨려 놓고는 그 어디에서도 판로를 찾을 수 없는 썩은 밀'가루를 《원조》로 들여 오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다.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은 형언할 수 없는 참담한 처지에 빠져 있다. 로동 능력 있는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600만 이상의 근로자들이 만성적 실업 및 반실업 상태에 놓여 있다.

군사비의 팽창으로 인한 인플레의 격화는 남조선 통화의 가치를 폭락시키고 인민 생활을 빈궁의 밑바닥에 몰아 넣고 있다. 해방 후 18 년 동안에 물가는 무려 5천 배나 올랐다. 군사 파쑈 집단이 집권한 이후 민생고는 절정에 달하고 있다. 물가는 매일과 같이 올라만 가고 로동자들의 임금은 벌써 3 년째 동결되고 있다.

남조선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처참하다. 광범한 농민 대중은 지주와 고리대의 채무 노예로 전락하였다. 농민들은 도합 180억 원의 부채를 걸머지고 있다. 매년 수만 호의 농가가 파산하여 리농하고 있으며 그들은 산과 들을 헤매면서 초

근 목피로 하루하루 연명하여 가고 있다.

지금 무서운 기근이 남조선 전역을 휩쓸고 있다. 식량은 수요에 비하여 1,000만 석이나 부족하며 수백만 대중이 기아 상태에 놓여 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구제도 받지 못한 채 영양 실조와 만성 질환으로 쓰러져 가고 있다. 기아와 빈궁에 시달리다 못해 일가족이 집단 자살하는 참극이 꼬리를 물고 일어 나고 있다. 오늘 남조선은 문'자 그대로 인간 생지옥이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18 년간에 걸친 미 제국주의자들의 《원조》가 남조선에 가져다 준 결과이다. 이것이 외세를 끌어 들이고 외세에 의존하는 남조선 지배층의 매국 정책이 빚어 낸 결과이다.

남조선 군사 통치배들은 자기들이 마치도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듯이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이니, 《중농 정책》이니 하고 요란스럽게 떠들어 왔으나 그들의 《새로운 처방》도 역시 완전히 파탄되였다. 파괴된 남조선의 공업과 농업을 복구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밑천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밑천을 마련하기 위하여서는 국내 자금을 동원하여야 한다. 그러나 군사 통치배들에게는 아무런 밑천도 없으며 그것을 해결할 능력도 없는 것이다. 그 누가 테로와 협잡을 일삼는 박 정희와 같은 자들을 믿고 경제 건설에 힘을 바치며 자기의 자금을 내놓겠는가?

군사 통치배들은 《대일 재산 청구권》에 의한 몇 푼 안 되는 《배상금》이나 그 어떤 외국의 차관으로 자금을 해결하며 하지만 이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의 경제적 파국을 수습하기 위하여서는 외세를 배격하고 인민들 자신이 자기의 정권을 수립하고 모든 인력과 재력을 동원하여 국내 자원을 개발하며 민족 경제를 복구 발전시켜야 한다. 남조선이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지배 하에 놓여 있고 계속 미국 《원조》에 매여 달려 있는 한 사태는 결코 개변될 수 없는 것이다.

민족 경제의 자주적 발전의 길을 따라 나아간 북조선의 형편은 미국의 《원조》에 얽매인 남조선의 사태와 아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조선 로동당의 령도 밑에 북반부 인민들은 해방 후 첫날부터 인민 경제의 세기적 락후성과 식민지적 예속성을 청산하며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닦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과거 사회로부터 락후한 경제와 문화를 넘겨 받았고 민족 간부가 부족하였으며 경제 건설의 경험이 없었던 형편에서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였다. 그러나 우리는 락후하고 무력하였던 탓으로 외래 침략자들에게 유린 당하고 모욕 당하고 천대 받던 쓰라린 과거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세계의 모든 민족들과 떳떳하게 어깨를 겯고 나아갈 수 있는 독립되고 힘 있고 문명한 민족으로 되기 위하여 자신이 선택한 길을 따라 동요 없이 전진하였다.

경제적으로 자립한다는 것은 자기의 기술, 자기의 자원, 자기의 간부와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며 국내 수요를 기본적으로 국내 생산으로써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자기 나라 살림살이를 자기 힘으로 꾸려 나아가자면 반드시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고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며 자체의 공고한 원료 기지를 축성함으로써 모든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련결된 하나의 종합적인 경제 체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중공업은 나라의 경제적 자립의 토대이며 인민 경제 발전의 기초이다. 중공업이 없이는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킬 수 없으며 국가의 독립도 보장할 수 없다.

과거 우리 나라에 중공업이 약간 있였다고 하지만 그것은 일제가 조선의 자원을 략탈하며 조선 인민을 착취하기 위하여 건설해 놓은 락후한 식민지 공업이였으며 그것마저 전쟁으로 인하여 다 파괴되였었다.

우리는 중공업의 복구와 발전에 거대한 힘을 집중함으로써 자체의 튼튼한 중공업 기지를 축성하여 놓았다.

오늘 공화국 북반부에는 전력 공업, 석탄 공업, 흑색 및 유색 금속 공업, 화학 공업, 건재 공업, 기계 제작 공업 등 기간적 중공업 부문들이 다 갖추어졌다.

우리의 중공업은 새로운 기술로 장비되였으며 국내 자원에 의거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민족 경제의 발전과 우리 인민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복무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중공업이 자립적이고 현대적인 중공업이며 광활한 발전 전망을 가진 공고한 중공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1962년에 북조선에서는 114억 키로와트시의 전력, 1천 320만 톤의 석탄, 120 여만 톤의 선철과 립철, 105만 톤의 강철, 238만 톤의 세멘트, 약 78만 톤의 화학 비료가 생산되였다.

특히 과거에 없던 기계 제작 공업이 창설되고 발전됨으로써 공작 기계를 비롯하여 전기 기계, 광산 기계, 금속 및 화학 공업 설비, 운수 및 건설 기계, 방직 기계, 농기계 등 각종 현대적 기계 설비들이 다량으로 생산되고 있다. 1962년에 기계 제작 공업은 전체 공업 생산액의 23%를 차지하였으며 기계 설비의 국내 자급률은 92%에 달하였다.

이리하여 우리는 민족 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료, 동력, 원료, 재료 및 기계 설비들을 기본적으로 국내 생산에 의하여 보장하고 있으며 자체의 중공업에 기초하여 전면적인 기술 혁명을 진행하고 있다.

중공업의 강력한 지원 밑에 경공업과 농업도 급속히 발전하였다.

우리는 락후한 인민 소비품 생산을 빨리 추켜 세우며 장성하는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현대적 기술로 장비된 대규모의 경공업 공장들을 건설하는 동시에 지방의 원료 원천과 예비를 적극 동원하며 군중의 힘을 발동하여 전국의 방방곡곡에 중소 규모의 지방 산업 공장들을 건설하여 놓았다.

우리에게는 지금 발전된 방직 공업이 있고 다양한 식료품 공업과 일용품 공업이 있다. 우리는 자체로 경공업의 원료도 충분히 해결하며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닦아 놓았다.

지난 시기에는 소비품의 거의 전부를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던 북조선이 오늘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비품으로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지금 우리의 상점들에 사치품은 적지만 모든 상점들이 우리 손으로 만든 생활 필수품으로 가득 차 있다.

북조선에는 원래 농경지가 적고 그것

도 매우 척박한 땅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부터 북조선은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없는 지대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는 관개 공사와 치산 치수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자연을 개조하고 현대적 농기계와 새로운 영농 기술을 부단히 도입함으로써 알곡 생산을 비롯한 농촌 경리의 모든 부문을 급속히 발전시켰다.

지금 우리는 식량을 자급자족하게 되였을 뿐만 아니라 공예 작물과 채소, 각종 실과와 잠견도 많이 생산하며 목축업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닦아 놓았다.

민족 경제와 함께 교육이 발전하고 민족 문화와 예술이 개화되고 있다.

북조선에서는 이미 1958년부터 중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멀지 않아 9년제 기술 의무 교육이 실시될 것이다. 민족 간부의 양성 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된 결과 기술자, 전문가들의 대부대가 꾸려졌으며 북조선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은 우리의 민족 기술 간부들의 손으로 훌륭히 관리 운영되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에는 실업자란 없으며 전체 근로자들이 다 일하고 다 배우며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누구에게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주택이 보장되여 있고 모든 사람들이 생활의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였다.

물론 우리 나라를 발전된 현대적 공업 국가로 전변시키며 우리 인민을 더욱 부유하게 잘 살도록 하자면 우리는 아직도 많은 일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자립적 경제 토대를 가진 공업-농업 국가를 건설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기본 문제를 해결하였다. 우리는 세기적인 락후성과 빈궁에서 완전히 벗어 났다. 오늘 우리 나라 경제는 자기의 기술, 자기의 원료, 자기의 간부와 근로자들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 인민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공업 제품과 농산물을 가지고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있다. 이것은 조선 민족의 력사에서 위대한 전변이다.

우리에게는 튼튼한 밑천이 마련되였으며 우리 앞에는 광활한 전망이 펼쳐져 있다. 지금 공화국 북반부의 근로자들은 당이 제시한 7개년 계획의 웅대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7개년 계획이 실행되면 우리의 공업은 더욱 발전되고 최신 기계 설비들과 각종 생산 수단들, 질 좋고 다양한 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게 될 것이다. 농촌 경리 부문에서는 기술적 개조가 실현되고 알곡을 비롯한 모든 농작물과 축산물 생산량이 결정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그 때에 가서는 우리 나라가 발전된 공업 국가로 될 것이며 우리 인민은 모두다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게 될 것이다.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민족 경제의 튼튼한 자립적 토대의 축성은 당의 현명한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이 자기의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 쥐고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극복하면서 굴함 없이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 나아감으로써만 가능하였다.

우리는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남에게만 의존하려는 사대주의 경향을 배격하고 어디까지나 자력 갱생의 원칙에서 주로는 자체의 힘과 자체의 자원으로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우리는 정전 직후 철도, 기계도, 세멘트도 없고 먹을 것과 입을 것도 모자라는 형편에서 허리띠를 졸라 매고 푼전을 아껴 가며 자립적 민족 경제의 초석을 하나하나 쌓아 올렸다.

우리 근로자들은 세기적 락후와 빈궁에서 하루 속히 벗어 나기 위하여, 조국의 륭성 발전과 후대들의 번영을 위하여 한결 같이 떨쳐 일어 나 영웅적인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민족 경제의 튼튼한 터전을 닦았으며 자기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였다.

전후 시기에 우리는 형제적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도합 5억 루블리(5억 5천만 딸라)에 해당하는 경제 기술적 원조를 받았으며 이러한 원조는 물론 우리의 경제 건설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그 때에도 우리 인민 경제를 복구 발전시키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우리 자체의 힘이였다. 당시의 어려운 형편에서도 우리는 원조에만 매여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의 힘과 국내의 모든 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형제 국가들의 원조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우리는 원조를 나라의 자립적 경제 토대를 닦는 데 돌렸다.

원래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는 침략과 예속과 략탈을 목적으로 하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원조》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원조를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 간섭의 수단으로 삼는 일이란 있을 수 없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원조 받는 나라의 민족적 독립을 공고히 하며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을 도와 주는 진정한 국제주의적 원조를 다른 나라에 준다.

오늘 우리 나라는 이미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되였으며 자기 힘으로 살아 나갈 수 있게 되였다. 우리 나라와 형제적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경제 관계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국제주의의 원칙과 완전한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 기초한 대외 무역을 통하여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무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이 있는 물건들은 수출하고 없고 필요한 것은 수입함으로써 형제 국가들과 유무상통하고 있으며 호상간의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가 건설하여 놓은 자립적 민족 경제는 우리의 정치적 자주성의 믿음직한 토대로 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그 어떤 외국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 완전한 독립 국가로서 자기의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우리는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고 경제에서 자립하였고 자주적인 대내외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외적의 침해로부터도 자기의 독립과 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자위력을 가지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은 우리 민족이 능히 자력 갱생하여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할 수 있으며 또 이 길로 나아감으로써만 진정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며 경제, 문화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여 주고 있다.

북반부에 창설된 자립적 민족 경제는 북반부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전 민족의 재부이며 그것은 전 조선 민족 경제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로 된다.

남북 조선이 걸어 온 상반되는 두 로선과 그 결과로부터 우리는 응당한 결론을 찾아 내야 한다.

지금 남조선은 새로운 출로를 찾지 않으면 안 될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남조선은 어느 길로 나아갈 것인가? 북조선 형제들과 손을 맞잡고 자립 경제를 건설하는 길로 나아감으로써 다시 소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외세에 의존하여 영원히 멸망의 구렁에 빠질 것인가? 이 두 갈래 길 중의 어느 하나를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조선은 망국 로선과 단호히 결별하고 제국주의의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 발전의 길에 들어 서야 하며 민족 내부에서 재생의 힘을 찾아야 한다.

우리 민족은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자기의 두 다리로 튼튼히 서서 자기의 살림살이를 꾸리며 문명하고 부강한 독립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 민족은 한때 일제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곡절을 겪었으나 오랜 세월을 두고 나라의 독립을 지켜 온 용감하고 단결력이 강한 민족이며 자기 힘으로 나라의 재부를 창조하고 찬란한 문화를 건설하여 온 근면하고 총명한 민족이다.

우리의 국토는 아름답고 우리 나라의 자원은 매우 풍부하다. 북에는 발전된 공업이 있고 남에는 비옥한 농토가 많다. 전국 각지에 수력 자원이 있고 다종다양한 지하 자원이 있다. 우리 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싸여 있어 수산 자원이 또한 무진장하다.

국내에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나라의 절반 땅에 민족 재생의 경제적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이, 유구한 력사와 문화의 전통을 이어 받은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민족이 무엇 때문에 양키 제국주의자들에게 계속 매여 달려 천대 받고 멸시 당하며 헐벗고 굶주리겠는가? 근 반 세기에 걸쳐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노예살이를 하였으며 또다시 18 년 동안이나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 기반에 얽매여 온갖 민족적 멸시와 굴욕을 다 당하여 온 후에도 미몽에서 깨여 나기에 아직 부족하단 말인가?

남조선의 어떤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민족 경제의 자주적 발전을 주장하면서도 다른편으로는 여전히 제국주의의 《원조》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 하고 계속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원조를 구걸하고 있다. 이것은 도적에게 집을 지켜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격이다.

남조선 인민들이 제 나라 제 땅에서 남의 종노릇을 하며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 병들고 굶어 죽어 가는 이것이 과연 미국의 《원조》를 받아 들인 결과가 아니란 말인가?

남조선의 일부 사람들은 출로를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원조》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침략적 일본 독점 자본을 끌어 들이는 것은 사태를 조금도 개선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도리여 남조선을 미 일 제국주의의 2중적 예속하에 밀어 넣음으로써 남조선 경제와 인민 생활을 헤여 나올 수 없는 파멸의 구렁에 빠뜨릴 것이다. 제국주의에 대한 온갖 환상을 버려야 한다. 외세 의존의 길에서 단연코 벗어나 전 민족의 힘을 합쳐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외에 다른 출로는 없다. 남북 간의 경제 교류를 실현하여 호상 유무상통하며 남북 조선의 모든 자원을 공동으로 리용하며 전 민족의 지혜와 재능과 힘을 동원하여 어떠한 외세에도 의존하지

않고 제 발로 튼튼히 설 수 있는 민족 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경제 지리적으로 보아도 북조선의 공업 지대와 남조선의 농업 지대를 련결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렇게 하여야 민족 경제의 통일적이고 조화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 민족 내부에 튼튼한 경제력이 있고 충분한 자금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쓰지 않고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에 매여 달리겠는가? 서로 다른 제도를 가진 나라들끼리도 경제적으로 협조하며 호상 유무상통하거늘 같은 민족끼리 교류조차 하지 못 할 어떠한 근거가 있는가? 정치적 견해와 사회 제도의 차이는 남북 간의 협조와 교류에 장애로 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아름답고 기름진 강토가 외래 침략자들에게 짓밟혀 날로 황페되여 가고 있으며 우리의 동포들이 도탄속에서 신음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만일 나라의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치 문제는 제쳐 놓고 경제 교류라도 실현하여 남조선의 경제적 파국을 수습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며 점차 경제적 자립의 토대를 축성하여야 한다.

우리는 사경에 처한 남조선 부모,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며 민족을 멸망의 비운에서 구원하려는 오직 한 가지 념원으로부터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남북 조선의 경제적 협조와 교류는 남북에 다 같이 유익하며 전 민족에 리익을 가져 올 뿐 손해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경제 교류를 실현함으로써 우리는 북조선 공업과 남조선 농업 간의 련계를 회복하여야 한다. 우리가 북조선의 전력, 석탄, 철재, 목재, 세멘트, 각종 기계 설비 등 중공업 제품들과 남조선의 농산물을 교역한다면 파괴된 남조선의 농업과 공업을 급속히 복구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남조선에서 주요 생업인 농업을 추켜 세우고 인구의 7할 이상을 차지하는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은 가장 절실한 문제이다.

남북 간의 교역과 협조는 극도로 피폐한 남조선 농촌에 생기를 불어 넣고 농업 생산을 일으켜 세워 남조선으로 하여금 미국의 잉여 량곡을 수입하지 않고도 살아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량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서로 협력하여 남조선 공업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원료, 기자재, 연료 및 동력의 부족을 타개하고 남조선 민족 공업을 복구 건설함으로써 공업 제품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수백만의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다.

우리는 파괴된 남조선의 민족 공업을 복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남조선에서 점차 공업화를 실현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공업화를 하지 않고는 경제의 자주적 발전이란 생각할 수도 없다. 남조선에는 풍부한 수력 자원이 있고 석탄, 철광석, 중석 기타 지하 자원이 많다.

우리는 이 귀중한 부원을 더는 제국주의자들에게 략탈 당하지 말아야 하며 헛되이 파묻혀 있게 하지 말아야 한다.

남북이 힘을 합쳐 남조선의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우리가 이미 북조선에 건설하여 놓은 공업의 힘을 공동으로 리용한다면 남조선에서도 연료 동력 공업, 금속 공업, 화학 공업, 건재 공업, 기계 제작 공업 등 기간적인 중공업 부문들을 창설할 수 있다.

중공업의 건설은 남조선 경제의 발전

을 위하여 절실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장차 국가의 통일을 달성한 후에 전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도 필요하다.

우리는 국내의 모든 력량을 동원하여 남조선에서 점차 공업화를 실현하는 동시에 또한 남북 조선 공업을 유기적으로 련결시키며 남북 조선 공업 간에 합리적인 분업을 조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유무상통한다면 우리는 파괴된 남조선 민족 공업을 소생시키고 나라의 독립의 기초로 되는 일련의 중공업 부문들과 경공업 부문들을 창설할 수 있으며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남조선을 미 제국주의의 경제적 예속에서 완전히 벗어 나게 할 수 있다.

남북 간의 교류와 협조는 남조선의 경제적 파국을 수습하고 당면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서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는 데 도움으로 될 뿐만 아니라 원쑤들이 우리들 사이에 뿌려 놓은 불신을 제거하고 호상 접근하게 함으로써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매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것이다.

남북이 힘을 합쳐 자주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자는 우리의 주장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정당하고 애국적인 주장이다.

그런데 남조선의 군사 통치배들은 《승공을 위하여 힘을 길러야 한다.》고 떠벌리면서 나라의 통일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남북 간의 어떠한 접촉도, 교류도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승공》이란 영원히 실현될 수 없는 망상에 불과하며 외세에 의탁해서 힘을 기를 수 없다는 것도 역시 명백하다.

미 제국주의의 《원조》를 밑천으로 세운 박 정희의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은 탁상 공론으로 끝났으며 《승공》을 위하여 힘을 기른다는 그의 반역적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 인민들은 전무후무한 재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바로 다름 아닌 공산주의자들이 조국의 독립을 수호하며 국토를 개발하고 파묻혔던 나라의 재부를 찾아 내여 민족 경제의 터전을 닦고 인민들을 잘 살게 하며 민족의 재생과 번영의 대로를 개척하는 애국적 위업을 이루어 놓지 않았는가? 바로 《반공》을 부르짖는 자들이 양키들에게 나라를 팔아 먹으며 민족 경제를 파탄시키고 인민들을 도탄에 빠뜨리며 민족을 암흑 천지에 몰아 넣는 매국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문제는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며 도탄에 빠진 남조선 인민들을 구원하는 데 있다.

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절반 땅이 기한에 떨며 피에 젖고 있는 오늘 전 민족이 단결하여 침략자들을 몰리치고 나라의 독립을 달성하며 경제의 자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

미 제국주의의 《반공》 정책과 민족 리간 책동에 넘어 가지 말아야 하며 남북이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하고 민족 경제의 자주적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전 민족의 힘과 재능을 합치고 나라의 모든 부원을 공동으로 개발하며 민족 경제와 민족 문화를 통일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간다면 우리는 능히 문명하고 부강하고 독립된 현대적 공업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남조선의 전체 애국적 동포들은 단결하여 미 제국주의의 침략 정책과 그 앞잡이들의 매국 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남북의 협조와 교류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자!

(《로동 신문》 사설)

계급 교양의 강화는 혁명 진지를 공고화하는 중요 담보

계급 교양의 강화는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적 무장에 있어서 제 1 차적 의의를 가진다.

당은 혁명의 매 단계에 적응하게 근로자들 속에서의 계급 교양의 강화에 심중한 관심을 돌려 왔다.

최근 시기 우리 당은 혁명의 현 단계에 있어서 계급 교양 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제시하였다.

근로자들 속에서의 계급 교양의 강화는 그들의 혁명적 의식을 제고시키며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그들의 로력적 열의와 창조적 지혜를 한층 더 높이 발양케 한다.

이것은 우리 혁명의 진지를 더욱 공고화하며 조국 통일의 위업을 앞당기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1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 하에 공화국 북반부에서 민주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조국의 나머지 절반 땅에는 아직도 제국주의자들, 지주, 자본가들이 남아 있으며 남조선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계급적 원쑤들과 대치하여 있으며 심각한 계급 투쟁의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계급적 원쑤들이 남아 있고 계급 투쟁이 진행되는 한 계급 교양의 부단한 강화는 혁명 승리의 필수적인 요구로 된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남북이 분렬되여 있고 전국적으로 민족 해방 혁명, 민주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이 완전히 승리하지 못 한 조건에서 계급 교양의 강화는 더욱 긴요하고 절박한 과업으로 된다.

우리 조국 남반부에는 국제 반동의 원흉 미 제국주의자들이 둥지를 틀고 앉아 있다.

미제의 남조선 강점으로 하여 우리 혁명은 특별히 장기성을 띠며 간고성을 띤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혁명의 기본 동력인 공화국 북반부 근로자들 속에서는 제국주의자들, 지주, 자본가들의 압박을 받아 보지 못 한 새로운 세대들이 더욱 더 시대의 역군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 새 세대들 속에서는 《고용 로동》, 《머슴'군》, 《소작료》 등의 말조차 벌써 난해한 술어로 되여 가고 있다.

이들 속에서 계급 교양을 부단히 강화하지 않는다면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의 본성을 잘 모를 수 있으며 따라

서 그들과 싸우려는 각오가 부족하게 될 수 있다.

레닌은 청년들 속에서 그들의 부모가 착취자들의 압제 밑에서 당한 쓰라린 생활 체험과 투쟁 로정을 통하여 그들을 부단히 교양함으로써만 혁명 투사로 육성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여 왔다. 청년들은 《그들의 부모가 지주와 자본가의 압박 하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는 때, 착취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개시한 사람들이 받은 고통을 자기가 몸소 느낀 때, 또 그들이 전취한 것을 고수하기 위하여 그 투쟁을 계속하는 데 어떠한 희생이 요구되며 지주와 자본가가 얼마나 광포한 적인가를 보는 때—그 때에야말로 이 사람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공산주의자로서 교양되는 것이다.》(레닌 전집 제 31 권, 353 페지)

당은 젊은 세대들 뿐만 아니라 과거 제국주의와 착취 계급의 압박 밑에서 살아 온 사람들 속에서도 계급 교양은 결코 소홀히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우리가 북반부에서 혁명을 승리한지 오랬고 착취 관계를 완전히 없앤지도 옛날로 되여 가고 있다. 한편 우리의 생활은 자유롭고 행복하며 나날이 더 풍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계급 교양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점차 제국주의와 착취 계급의 본성을 잊어 버릴 수 있으며 안일성, 해이성에 빠질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장기간에 걸쳐 계속 긴장된 투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간고성도 남아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계급 교양을 부단히 강화하지 않는다면 사람들 속에서는 점차 미래에 대한 신심이 희박해질 수 있으며 투쟁에서 권태증이 나올 수도 있다.

더우기나 오늘 수정주의자들이 비계급적 사상을 퍼뜨리기에 날뛰고 있는 조건에서 이러한 것은 보다 큰 것으로 될 수 있다.

경험은 로동 계급의 혁명적 의식, 공산주의 의식이 적대 계급의 청산이나 물질적 생활 조건의 변화에 의하여 저절로 생겨 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맑스주의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공산주의 의식은 부단한 교양 사업에 의해서만 배양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되면 될수록 근로자들 속에서의 공산주의 교양, 계급 교양의 강화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여 왔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만일 우리 당과 당원들이 사상적 단련을 부단히 강화하지 않는다면 온갖 반맑스주의적인 사상적 관점과 경향이 외부에서 들어 올 수 있고 또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경각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나라는 분렬되여 있으며 우리는 남조선을 강점한 국제 반동의 괴수인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직접 대치하고 있습니다. 적들은 우리의 력사적인 사회주의 전취물들을 빼앗으려 하며 우리 내부의 온갖 부정적 요소들을 적대 행위에 리용하려고 광분하고 있습니다.》(김 일성 선집 제 5 권, 241~242 페지)

계급 투쟁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의 학설은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투쟁의 전략 전술을 작성함에 있어서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에 있어서의 각 계급들의 력량 관계의 변화를 정확히 타산하며 투쟁의 예봉을 계급적 원쑤들에게 돌리며 그 투쟁의 승리를 위한 물질적, 정신적 준비를 철저히 갖출 것을 요구한다.

이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적의 력량에 대한 정확한 타산과 더불어 자체의 력량을 충분히 타산하며 준비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남북 통일의 혁명적 대사변은 점점 더 가까와 오고 있으며 북반부 인민들은 7 개년 계획의 수행으로써 이 대사변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 놓을 물질적 담보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응당 사상적 준비가 동반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 의식을 부단히 높이는 것이 긴요한 요구로 된다.

혁명에서 물질적 력량의 준비는 물론 필수불가결의 것이다. 그러나 물질적 력량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실지 혁명해야 할 사람들에게 사상적 준비가 약하고 싸울 각오가 잘 되여 있지 않다면 그러한 물질적 력량은 응당한 생활력을 나타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 투쟁에서 사상적 준비는 항상 승리의 결정적 요인으로 된다.

장백의 밀림 속에서 후방도 없고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조건에서, 물질적 력량에 있어서는 전혀 적과 대비할 여지조차 없는 조건에서 15 여 성상을 싸웠으며 이겨 온 항일 빨찌산들의 투쟁 로정은 이를 잘 말하여 주고 있다.

원쑤를 물리치고 조국 통일의 위업을 하루 속히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는 물질적 력량을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사상적 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우리 당은 계급 교양 사업을 일시도 중단하거나 소홀히 함이 없이 우리 혁명, 세계 혁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부단하고 완강하게 이 사업을 끌고 나갈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2

어떠한 내용, 어떠한 방향으로 계급 교양을 강화할 것인가?

우선 제국주의를 증오하고 그와 싸우려는 사상으로 사람들을 무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을 돌려야 할 것은 다만 제국주의자들의 만행을 폭로하고 규탄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본성을 똑똑히 깨우쳐 주는 문제이다.

제국주의의 존재는 다른 나라 인민들에 대한 기생적 략탈과 떼여서 생각할 수 없다. 략탈은 제국주의의 주요 생명선이다.

제국주의가 남아 있는 한 다른 나라 인민들에 대한 그들의 략탈적, 침략적 본성은 변할 수 없다.

그러나 제국주의의 략탈적 본성만 알려 주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그의 취약성, 부패성을 옳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당은 특히 미제와 일제를 증오하는

사상으로 근로자들을 교양할 데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미제와 일제는 력사적으로 조선 침략의 공모자이며 공범자이다.

근로자들 속에서 미제는 우리 인민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첫째 가는 투쟁 대상이라는 사상이 항상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부단히 교양해야 한다.

일제는 과거 36 년간이나 조선 인민을 노예처럼 부려 먹은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이 원쑤들이 오늘 또다시 미제의 사촉과 비호를 받으면서 조선에 대한 재침 기도를 실현해 보려고 남조선에 손을 뻗치고 있다. 근로자들에게 이 사실을 똑똑히 가르쳐 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계급 교양에서 자본주의 제도와 사회주의 제도의 대비 교양이 중요하다.

우선 자본주의 제도는 부르죠아지를 비롯한 소수 착취 계급을 위한 세상이며 사회주의 제도는 전체 인민이 착취와 압박을 모르고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근로자들에게 잘 알려 주어야 한다.

우리 조국 남북반부의 대비는 근로자들 속에서 두 제도의 본질을 리해시킴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북반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착취에서 해방되였으며 다 같이 일하며 집과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는다. 누구나 다 배울 수 있고 병나면 무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반면에 남조선에서는 수백만의 실업자, 반실업자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으며 인민 생활은 극도로 령락되였다.

미제와 군사 깡패들에 의한 테로와 폭압은 남조선 천지를 인간 생지옥으로 만들고 있으며 대중적인 기아가 남조선 전역을 휩쓸고 있다.

한날 한시에 해방된 남북반부는 정반대되는 두 제도의 길에서 락원과 지옥의 판이한 세계로 달라졌다.

현실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여지 없이 증명해 주고 있다.

당은 우리 근로자들이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사는 진정한 보람과 행복을 느낄 줄 알도록 교양하며 이 제도를 사랑하고 고수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남반부 인민들도 우리와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하여 투쟁하려는 정신으로 사람들을 교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계급 교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사상으로 사람들을 무장시키는 것이다.

수정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운동 대렬내에 들어 온 제국주의자들의 '아편 장사'군이다. 그들은 사람들이 이 아편을 사 먹고 그에 취하여 태평가를 부르며 세상만사에 무관하며 벗과 원쑤를 구별하지 못 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의 행동은 결국 제국주의자들을 분칠해 주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투쟁 정신을 마비시키려는 것이다.

근로자들에게 수정주의의 이러한 반동적 본질을 철저히 인식시킴으로써만 우리는 그러한 독소의 침습을 방지할 수 있으며 혁명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애국주의 교양에서 중요한 것은 조국의 향토를 사랑하며 국가 재산을 애호하며 나아가서 전체 사회주의 진영을 사랑하며 조국의 영예를 고수하고 그를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공산주의 투사로 교양하는 것이다.

근로자들 속에서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자주 정신을 더욱 높이 발양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혁명은 수입할 수도 수출할 수도 없는 만큼 매개 나라의 당과 인민은 자주, 자립, 자결의 원칙에서 자기들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며 개척해 나가야 한다.

자주, 자결의 립장은 결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모순되지 않는다. 매개 나라의 혁명은 국제 혁명의 일환을 이루고 있는 것 만큼 임의의 나라에서의 혁명의 자주적이며 성과적인 발전은 곧 국제 혁명의 발전에 그만한 도움을 주는 것이다. 당은 모든 근로자들을 항상 이러한 정신으로 교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매개 근로자들이 자기의 사회주의적 향토의 건설에 심혈을 기울이게 될 때 그는 동시에 자기의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애국자로 될 수 있는 것이며 나아가서 전체 사회주의 진영과 전 세계 로동 계급의 공동 리익을 위한 국제주의 전사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선집, 제 6 권, 136 폐지)

우리 근로자들은 혁명의 매개 초소에서 자신들이 맡고 있는 혁명 과업에 대한 철저하게 자각적이고 책임적인 립장을 견지함으로써 진정한 애국자가 되여야 하며 국제주의자가 되여야 한다.

계급 교양의 강화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혁명 승리에 대한 신심을 굳건히 하는 것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도처에서 인민 대중의 혁명 투쟁 특히 공산주의 운동을 탄압하기에 광분하고 있으며 세계 제패를 꿈꾸고 있다. 그들은 국가 예산의 많은 부분을 전쟁 준비에, 군비 경쟁에, 핵 및 로케트 무기로의 장비에 돌리고 있다. 그들은 랭전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도처에서 국부 전쟁을 일으키며 음으로 양으로 세계 대전을 일으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력사의 수레바퀴는 뒤로 역전시킬 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제 1 차 세계 대전은 세계 제국주의 련쇄의 한 고리에 파렬구를 뚫어 놓았으며 로씨야에서의 위대한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를 가져 왔다.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제 2 차 세계 대전은 독일, 일본, 이태리 등 렬강을 멸망시켰으며 전체적으로 제국주의 진영을 약화시켰고 사회주의 진영의 형성을 가져 왔다.

만일 제국주의자들이 또다시 분별 없는 모험을 감행한다면 인민들은 자본주의 제도를 영영 쓸어 버리고 온 세상에 사회주의-공산주의의 붉은기를 휘날릴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소동은 결국 끝어져 가는 자기들의 최후의 운명을 재촉할 따름이다.

우리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제국주의를 쓸어 버리기 위한 혁명 투쟁에 자신들을 더욱 준비시켜야 한다.

현 시기 계급 교양을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는 오늘도 좋지만 래일이 더 좋으며, 공산주의에로 들어 갈수록 좋다는 신념으로 근로자들을 무장시키는 것이다. 그래야 사람들이 혁명 투쟁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진취성, 용감성, 지혜를 낼 수 있다.

동시에 사람들이 투쟁이 없이, 곤난을 극복함이 없이 공산주의를 《맞이하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교양해야 한다. 공산주의 락원은 투쟁 속에서만, 투쟁을 거쳐서만 건설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오리라는 확신을 주도록 해야 한다.

우리 투쟁의 앞길에는 아직도 허다한 난관들이 가로 놓여 있으며 일시적 실패도, 후퇴도 있을 수 있다. 곤난 극복의 정신으로 근로자들을 무장시킴으로써만 우리는 어떠한 시련에 부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승리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3

계급 교양을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이에 도덕 교양 사업을 밀접히 결부시키는 것이다.

계급 교양은 도덕 교양과 결합됨으로써만 보다 큰 생활력을 발휘할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계급적 착취와 빈궁의 낡은 세계에 대한 패절을 촉진하는 것만이, 새로운 사회주의 제도의 승리를 공고화하는 것만이 도덕적이며 륜리적인 것이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산주의적 륜리의 기초는 공산주의의 공고화 및 완성을 위한 투쟁이다.》 (전집 제 31 권, 353 페지)

우리의 도덕 교양은 직접적으로 계급 투쟁, 계급 교양에 복종하며 복무한다.

우리는 계급 의식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도덕으로 무장함으로써만 자신들을 인격적으로 보다 완성된 혁명 투사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인격적 완성은 당의 계급 로선, 군중 로선을 관철함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계급 교양과 도덕 교양의 결합은 중요하며 필수적인 요구로 된다.

도덕 교양을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사람들 속에서 례절을 잘 지키도록 교양하는 문제이다.

우리 나라는 옛날부터 동방 례의지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당은 우리 조상들이 이룩해 놓은 좋은 례의범절의 전통을 계승하고 적극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늙은이들에게 례절을 지킬 줄 알아야 하며, 녀성들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편의와 배려를 돌려야 하며, 어린이들에게 착한 행동을 하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

우리는 동지들 간의 관계에서 진정한 신뢰와 사랑, 성실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도덕 교양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집단을 사랑하고 로동을 사랑하는 품성으로 사람들을 무장시키는 문제이다.

집단주의는 개인의 리익에 앞서 군중의 리익을 생각하며 공동 재산과 국가 재산에 대하여 애호하는 정신에서 중요하게 표현된다.

우리는 근로자들 속에서 자기 것만을 아는 개인-리기주의 사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을 집단주의 도덕으로 성과 있게 무장시켜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건달 사상을 반대하며 적게 일하거나 되는 대로 일하고 많이 받으려는 사상을 반대하고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근로자들을 교양해야 한다.

당은 특히 현 시기 근로자들 속에서 1 인당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도록 교양할 것을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다. 1 인당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개 근로자들이 로동에서 창의 창발성을 내며 기술 혁신을 위해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한다.

도덕 교양에서 또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으로 근로자들을 무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자기의 마을과 거리를 사랑하고 자기의 직장을 사랑하고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데로부터 또한 전체 사회주의 진영을 사랑하고 전 세계 피착취 근로 대중을 사랑하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도덕을 가지도록 근로자들을 교양해야 한다.

당은 특히 청소년들 속에서 도덕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집단과 나라를 사랑하고, 로동을 사랑하고, 용감하게 행동하며, 례절 밝은 사람들로 자라나도록 할 데 대하여 큰 주목을 돌리고 있다.

우리는 도덕 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낡은 도덕 관념, 낡은 인습들을 청산하고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사는 천리마 기수들의 고상한 품성들을 적극 조장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새로운 도덕의 전면적인 개화를 보장할 수 있다.

계급 교양과 더불어 도덕 교양을 강화함으로써만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이 진정으로 자기 계급을 사랑할 줄 알고 모든 것을 자기 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바칠 줄 아는 공산주의 혁명 투사로 성과 있게 육성할 수 있다.

4

계급 교양을 강화함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당의 모든

선전 선동 수단들을 집중적으로, 통일적으로 이 사업에 조직 동원하는 문제이다.

여기에서 신문, 잡지를 비롯한 각종 출판물들, 방송과 극장, 영화관의 무대들이 주요한 역할을 놀아야 한다.

교양 방도에서의 기본은 리론과 실천을 결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제도 밑에서는 사람들에게 적대적 계급 관계를 실지 체험시킬 수는 없는 만큼 형상적 수단들을 통하여 그것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것처럼 느끼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 예술이 계급 교양 사업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출판물들과 극장의 무대들도 훌륭한 교양 자료들과 문학 예술 작품들이 나옴으로써만 계급 교양에서 생활력을 발휘할 수 있다.

훌륭한 문학 예술 작품들을 많이 쓰고 만드는 데는 작가, 예술인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당은 이에 광범한 군중의 힘을 발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학 예술 써클 사업, 현상 모집 사업을 더 활발히 전개하며 출판 보도 기관들에서 로농 통신원들과의 사업을 더 강화해야 한다.

대중 속에는 계급 교양을 위한 귀중한 자료들이 수다하다. 그것들을 모두 계급 교양을 위해 발동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들이 인민들을 어떻게 착취 압박하였으며, 또 인민들이 계급 사회에서 얼마나 고생스럽게 살았으며, 인민들이 착취자들을 반대하여 어떻게 싸웠는가를 보여 줄 수 있는 방향에서 자료들을 취사 선택하며 형상화하는 문제이다.

계급 교양은 특히 청소년들을 위해 중요하니 만큼 또한 문학 예술 작품들이 그들의 기호에 맞게 투쟁 정신과 정서가 옳게 결합되여야 한다. 그래야 보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작품의 형상이 근로자들, 청소년들의 심장을 틀어 쥘수록 생활력을 발휘할 것이며 그들을 성과적으로 적대 계급에 대한 증오의 사상으로, 투쟁의 정신으로 무장시킬 것이다.

계급 교양을 강화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문제는 근로자들 속에서 우선 계급과 계급 투쟁에 관한 지식을 사리를 따져 가며 리론적으로 체득시킬 뿐만 아니라 계급 투쟁에서 끝까지 견결하도록 사상적 준비를 철저히 갖추게 하는 것이며 동시에 계급 투쟁에서 어떻게 승리하겠는가 하는 수단과 방도를 명확히 알려 주는 것이다.

계급 교양이 리론과 더불어 사상적 각오를 가지게 하며 투쟁의 전략 전술을 가지게 함으로써만 진정으로 생활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리하여 계급 의식을 더욱 높임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혁명의 민족적 임무와 더불어 사회주의의 동방 초소를 굳건히 지켜야 할 국제적 임무를 보다 성과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대중적 기업 관리 방법으로서의 작업반 내부 채산제

김 재 은

기업소들과 그 내부 경영 단위들을 어떠한 형식과 방법으로 관리 운영하는가 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 관리에서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의 하나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공장, 기업소들에 대안의 사업 체계가 확립됨으로써 기업소 전반에 걸치는 관리 운영 상 문제들 뿐만 아니라 내부 경영 단위의 관리 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성과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작업반 내부 채산제 역시 그러한 문제들 중의 하나이다.

오늘 작업반 내부 채산제를 합리적으로 도입하고 강화하는 것은 광범한 근로 대중을 기업 관리 운영 사업에 더욱 광범히 참가시키며 그들을 증산과 절약을 위한 투쟁에로 적극 불러 일으킴으로써 7 개년의 웅대한 전망 계획과 당면하게는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완수 및 초과 완수를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작업반 내부 채산제는 대중적 기업 관리의 중요한 형태

작업반 내부 채산제는 광범한 생산자 대중을 기업 관리에 직접 참가시키는 중요한 형태이다.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어떠한 형태와 방법으로 대중을 기업 관리 운영 사업에 참가시키는가 하는 것은 그들을 이 사업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인입하는가 하는 것을 좌우하는 극히 중요한 문제이다.

일찌기 레닌은 근로 대중을 관리에 광범히 참가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형태들을 탐구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직 이 새 계급이 책자나 군중 집회나 연설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실천을 통해서 교양되는 때에만, 오직 그가 가장 광범한 근로 대중을 관리에 인입하는 때에만, 오직 그가 국가를 관리하며 국가 질서를 창조하는 사업에 쉽게 익숙해질 가능성을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어 주는 그런 형태들을 강구해 내는 때에만 사회주의적 변혁은 공고해질 수 있으며, 이런 조건하에서는 사회주의적 변혁은 공고화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레닌 전집 제 28 권, 537 페지)

그러나 대중을 기업 관리에 참가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형태를 강구해 낸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형태는 대중의 의식성, 그들의 기술적 및 문화적 준비 정도, 경리 운영 수준, 간부들의 지도 능력 등에 적응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령도하는 맑스-레닌주의 당들은 나라의 구체적인 력사적 제 조건에 적응한 대중적 관리의 형태를 말 그대로 창조해 내야 하는 것이며 또

한 그것을 현실 발전의 요구에 상응하게 부단히 완성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우리 당은 지난 시기 대중 속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싹들을 제때에 일반화하면서 합리적이고 새로운 기업 관리 형태를 창조 발전시킴으로써 이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아주 능숙하게 해결하여 왔다.

현 시기 우리 나라 공장, 기업소들에 광범히 도입 일반화되고 있는 작업반 내부 채산제는 작업반의 경리 운영 활동에 대한 로동자들의 집단적인 물질적 관심성을 자극함으로써 그들이 기업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한다.

물론 처음 내부 채산제를 도입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자재의 절약과 증산에 집단이 물질적 관심을 갖게 할 것을 주로 목적하였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작업반 내부 채산제를 조직한다는 것은 결코 이에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작업반 내부 채산제는 그 자체가 전체 반원들 자신에 의하여 진행되지 않을 수 없는 집단적인 사업이다.

생산 계획 수행과 자재의 절약 정형에 따라 작업반의 로임 규모를 결정하는 작업반 내부 채산제에서는 반원들이 증산과 절약, 나아가서는 그를 위한 경리 운영의 개선에 물질적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작업반의 일체 관리 운영 사업에 적극 참가하게 된다.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전문적인 관리 일'군이 없는 작업반에서 반원들 자신이 작업반의 관리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적극 참가함이 없이는 우선 내부 채산제를 운영하여 나아갈 수 없으며 설사 운영한다 하더라도 채산을 맞출 수가 없는 것이다.

대안 전기 공장 변압기 직장 림 병규 작업반에서는 작업반 내부 채산제를 실시하면서부터 작업반에서의 계산 사업뿐만 아니라 작업장 단위로 조직된 분조에서의 생산과 자재의 입출고에 대한 장악, 제품의 검사 등 작업반 관리의 이러저러한 측면들이 반원들 자신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작업반 내부 채산제가 실시될 때 반원들의 일상적인 생산 경제 활동과 작업반의 관리 운영 방법에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모든 작업반원들의 활동이 단순히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부과된 작업 정량을 수행하는 직접적인 생산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들은 직접적인 생산자인 동시에 생산의 관리자이며 통제자로 그리고 또한 생산의 추진자로 등장하게 되며 이에 따라 작업반 관리 운영은 반원들의 직접적인 참가하에 집단적인 지혜와 힘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작업반 내부 채산제는 대중적 기업 관리 형태 중에서도 독특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생산자 대중이 기업 관리에 참가하는 형태에는 생산 기술적 문제들과 행정 경리적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 및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작업반 내부 채산제는 비상설적인 성격을 띠는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과는 달리 생산자 대중으로 하여금 경상적인 생산 활동이 진행되는 작업반을 거점으로 하여 기업 관리에 참가하게 한다. 여기에 대중적 기업 관리 형태로서의 작업반 내부 채산제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가 있으며 또 그것으로 하여 작업반 내부 채산제는 일련의 우월성을 가진다.

작업반 내부 채산제는 우선 로동자들이 본신 생산 임무 수행에서 유리됨이 없이 직접 관리 운영 사업에 참가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은 또한 로동자들이 관리에 참가함에 있어서 더욱더 높은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휘하게 하며 경리 운영 사업을 부단히 완성 발전시키게 한다. 작업반은 현 시기 우리 나라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의 거점이며 그들이 실천 활동을 통하여 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첫 학교이기도 하다. 작업반에서는 대중적 기업 관리 사업과 공산주의 교양이 더욱 훌륭히 결합되게 된다. 그리하여 근로자들이 기업 관리에 참가하며 그것을 발전시킬 데 대한 자각성과 창의 창발성이 비상히 제고되게 된다. 또한 일상적인 생산 및 경영 활동을 통하여 대중은 관리 능력을 쉽게 배울 수 있으며 관리 지식과 새로운 발기들을 그 자리에서 곧 실천에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작업반 내부 채산제를 통하여 생산자 대중이 작업반을 집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됨으로써 경리 운영에서 거대한 전변들이 일어 나고 있다.

87 개의 전체 작업반에서 내부 채산제가 운영되고 있는 하성 광산의 실례는 이것을 명백히 실증하여 주고 있다. 이 광산의 로동자들 속에서는 작업반 내부 채산제 운영을 통하여 경제 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는 기풍이 확고히 서고 있으며 증산 열의가 일층 높아지고 기계 설비들을 애호하며 연유, 자재 등의 소비 절약을 위한 투쟁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금년 1.4 분기에는 전년 동기에 비하여 로동 생산 능률이 136%로 제고되였으며 갈철 톤당 원가는 9.7%나 저하되였다.

이것은 대중적 기업 관리 형태로서의 작업반 내부 채산제의 거대한 생활력을 명백히 보여 주는 것이다.

대안의 사업 체계와 작업반 내부 채산제

우리 나라 공장, 기업소들에서의 대안의 사업 체계의 확립은 작업반 내부 채산제를 도입하고 그것을 가일층 강화 발전시킴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작업반 내부 채산제는 대중들이 경영 활동의 개선을 위하여 주인답게 나설 때에만 성과적으로 도입 운영될 수 있는 만큼 그 자체가 벌써 로동자들의 일정한 자각성과 의식성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바로 대안의 사업 체계야말로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일하고 공산주의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사업 체계》(《대안의 사업 체계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3 페지)이며 《모든 사람들을 다 단결시키며 그들의 헌신성과 창발성을 적극 발양》(우와 같은 문헌)시키는 사업 체계이다.

대안의 사업 체계 하에서는 당 위원회의 령도 체계가 확고히 수립되고 대중 속에서 정치 사업이 결정적으로 강화됨으로써 직접적인 생산자들의 책임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광범한 대중이 실천 활동에서 기업 관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등장하게 된다. 계획화 사업

하나만 보더라도 종전에는 계획 작성 사업이 계획 일'군들의 책상 머리에서 순 계산 사무적인 사업으로 진행되던 것이 광범한 생산자 대중의 직접적인 참가 하에 중요한 경제 조직 사업으로 진행되게 되였으며 이 사업에서 대중들은 더욱더 적극적이며 창발적인 의견을 제기하게 되였다.

대안 체계 하에서는 생산자 대중이 기업 관리에 대하여 진정으로 책임 지는 립장에 확고히 서게 됨으로써 대중적 기업 관리 형태로서의 작업반 내부 채산제가 성과적으로 도입 운영되게 된다.

대안의 사업 체계는 또한 작업반 내부 채산제가 성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일련의 경제적 조건을 조성하여 준다.

작업반 내부 채산제를 도입하기 위하여서는 자재 보장 및 기술 준비를 생산에 선행시키며 생산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 조건이 조성되지 않고서는 작업반 내부 채산제의 성과적 도입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대안의 사업 체계에서는 새로운 기술 지도 체계가 확립됨으로써 낡은 체계 하에서 발로되던 기술 준비에서의 부서 본위주의적 경향이 퇴치되고 기술 력량이 집중적으로 동원되여 기술 준비 사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였다. 또한 자재를 현물로 생산 현장에, 기대 옆에 가져다 주게 되고 자재 보장 사업이 생산에 결정적으로 선행되게 되였으며 합리적인 생산 지령 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계획이 일정별로 정확히 수행될 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새로운 공업 관리 체계의 확립은 작업반 내부 채산제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다.

대안의 사업 체계 하에서 비로소 성과적으로 도입 발전되게 된 작업반 내부 채산제는 반면에 새로운 사업 체계의 위대한 생활력이 더욱 원만히 발현되게 한다.

여기에 대안 사업 체계와 작업반 내부 채산제와의 호상 관계의 다른 한 측면이 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점에서 작업반 내부 채산제가 대안 사업 체계의 위대한 생활력을 더욱 원만하게 발현시킨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작업반 내부 채산제는 대안의 사업 체계가 확립됨으로써 더욱 비등된 로동자들의 높은 열의와 적극성을 물질적 관심의 자극으로써 옳게 안받침하여 주며, 그들의 일상적인 생산 활동이 진행되는 단위인 바로 작업반을 거점으로 하여 대중을 더욱 조직화함으로써 작업반의 집단적 관리 운영이라는 하나의 구체적 형태에서 기업 관리에의 그들의 참가를 실현시킨다.

작업반 내부 채산제에서는 대안의 사업 체계 하에서 발휘되는 대중의 단결과 협력,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의 위력이 그들의 생산 활동과 사상 교양이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바로 그 단위를 거점으로 하여 하나의 구체적인 형태로 조직화된다. 즉 여기에서는 작업반 관리 운영에서 제기되는 이러저러한 사업들이 작업반 성원들에게 구체적으로 분공되며 그들은 작업반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일상적으로 기업 관리에 참가하게 된다.

례컨대 대안 전기 공장 내 작업반들에서는 매 작업반 성원들이 사회적 계산원, 생산 담당 책임자, 출근 및 로임 담당자, 공구 담당자, 절약 초소원, 생산 문화 담당자, 안전 및 검사원 등의 분공을 빠짐 없이 맡고 있다. 그리하여 작업반원들 자신에 의하여 생산, 출근 상태, 자재의 입출고와 그의 제품별 소비 실적이 장악되고 있으며 공구가 보장되고 있고 생산 문화가 제고되고 제품의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작업반 내부 채산제는 이 모든 사업에 참가하는 근로자들의 열의를 물질적 자극으로써 안받침하여 준다.

내부 채산제에 의하여 운영되는 작업반들에서는 초과 임금 부분과 상금을 분배하는 기준으로 되는 점수를 평가함에 있어서 작업반 성원들의 개인별 생산 및 절약 과제 수행 정도와 함께 그들의 사회적 분공 수행 정형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작업반 성원들은 맡은 바 사회적 분공 수행에서 적극성과 헌신성을 발휘하면 할수록, 작업반 운영 사업의 이러저러한 측면들을 직접 담당 수행함에 있어서 성과가 크면 클수록 보다 많은 초과 임금과 상금을 분배 받게 된다.

위임된 분공을 책임적으로 감당 수행하려는 작업반원들의 비등된 열의에 물질적 자극이 옳게 결합되게 될 때 그들은 분공 수행에서와 기업소 경영 활동의 개선을 위한 투쟁에서 더욱더 적극성과 헌신성을 발휘하게 될 것이며 광범한 생산자 대중이 의식적으로 발동되는 데로부터 나오는 대안 체계의 위력이 더욱 높이 발양될 것은 명백하다.

이렇듯 대안의 사업 체계에 작업반 내부 채산제가 확고히 결합됨으로써 전자는 그의 위대한 생활력을 더욱 원만히 발양할 수 있게 되며 후자는 그의 강화 발전을 위한 튼튼한 담보를 보장 받게 된다.

작업반 내부 채산제의 도입 운영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우리 나라 공장, 기업소들에서 작업반 내부 채산제 도입 운영의 력사는 그리 길지 못 하다. 그러나 우리는 작업반 내부 채산제를 도입하고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경험들을 축적하였다. 오늘 이 경험들을 일반화하는 것은 작업반 내부 채산제를 공고 발전시키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작업반 내부 채산제를 성과적으로 도입 운영하며 그를 강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우선 내부 채산제 지도 체계를 옳게 확립하며 내부 채산제 단위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다.

대안 전기 공장에서는 재정 부기부의 방조 밑에 9 명으로 되는 내부 채산제 위원회를 직장들에 조직하였다. 바로 이 위원회가 직장에 있는 모든 작업반들의 내부 채산제를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그에 망라된 위원들은 한 개 작업반씩 그 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직장 지도 일'군들에게도 내부 채산제 문제와 관련된 분공을 주고 있다.

생산 지도원에게는 생산 지도를, 부직장장들에게는 설비, 로력 및 로동 안전에 대한 것을, 부기원에게는 원가와 로임을, 자재 공급원에게는 원자재와 반제품에 대한 것을, 그리고 통계원에게는 출근 정형을 장악하게 함으로써 모두가 계획에 따라 작업반에 내려 가 일상적으로 지도 방조하도록 하고 있다.

작업반 내부 채산제를 옳게 운영하

기 위하여서는 대안 전기 공장에서와 같이 직장들에 그것을 지도하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

작업반 내부 채산제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내부 채산제 계획 수립, 반원들과 분조들에 대한 평가, 월 총화 등에서 적지 않은 문제들이 제기된다. 내부 채산제 위원회와 같은 지도하는 조직이 있어야 이러한 문제들을 적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작업반 내부 채산제에 대한 일상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내부 채산제 조직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은 또한 단위 설정 문제와 이렇게나 저렇게나 관련된다.

내부 채산제의 조직은 내부 채산제 단위들에서의 생산 활동의 결과에 대한 정확한 계산 및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 만약 내부 채산제 단위에서 생산 활동의 결과에 대하여 계산 및 평가를 할 수 없다면 증산과 절약을 위한 투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없을 것이며 또한 그 단위에 망라되여 있는 일'군, 집단에 대한 로임 및 상금 분배 몫을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부 채산제 단위는 우선 생산 활동의 결과가 정확히 계산 평가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내부 채산제 단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또한 린접된 작업 공정들을 어느 정도로 포괄할 것인가, 여러 교대로 작업하는 조건에서는 교대를 통합 또는 분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면밀히 고려되여야 한다. 단위 설정에서 이 문제가 옳게 해결되지 않으면 부서 본위주의가 발로될 수 있으며 설비의 합리적 리용이 보장되지 못할 수 있고 자재의 절약적인 리용에도 일정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작업반 내부 채산제의 도입 및 강화에 있어서 내부 계획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 중에서도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내부 채산제 단위인 작업반에 바로 어떠한 계획 지표들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작업반 내부 채산제 단위들에 계획 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두 측면에서 제기되는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는 해당 단위들에서의 생산 활동을 전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계획 지표가 매개 단위에서 진행되는 생산 경제 활동의 총적인 방향으로, 목표로 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소여 단위에서의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도 되여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요구는 과다한 지표들을 설정하여 계산상 복잡성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들을 원만히 충족시키려면 내부 채산제 단위들의 계획 지표는 항상 생산 활동을 개괄적으로 특징 짓는 몇 개 지표를 중심으로 하여 설정되여야 한다. 작업반에서의 생산 활동을 개괄적으로 특징 짓는 지표는 생산고와 원가이다. 생산고 지표는 작업반 생산 활동의 결과를 량적인 면에서 개괄 반영하며 원가 지표는 작업반 생산 활동의 결과를 질적인 면에서 종합 반영한다. 그러므로 내부 채산제를 도입하는 작업반들에 대하여 생산고 또는 작업량 지표와 원가 또는 절약액 지표는 례외 없이 설정되여야 한다. 이 밖에 물론 작업반에서의 생산 활동을 이러저러한 개별적인 단면에서 반영하는 분석적인 지표들을 더 추가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대안 전기 공장에서는 생산 계획, 원가 계획, 출근률, 로동 생산 능률 및 로임을 포함하는 로동 계획, 설비 리용률 등 계획 지표들을 작업반에 대하여 설정하고 있는데 이 경험은 일반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작업반 내부 채산제의 도입 및 강화를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또한 작업반 성원들과 그 집단의 물질적 관심을 자극하는 체계를 정확히 수립하는 것이다.

작업반 내부 채산제에서 매개 로동자들에 대하여 물질적 자극을 주기 위한 공간은 로임과 상금의 분배이다.

현 시기 반도급제를 실시하는 작업반들에서는 로임을 분배함에 있어서 총 도급 임금을 기본 임금(로임의 100%)과 초과 임금으로 구분하고 이 두 부분에 대하여 각이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 부분인 기본 임금은 가동 일수와 기능 급수에 의하여 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 하면 이렇게 함으로써만 기술 기능 수준 제고에 대한 로동자들의 물질적 관심을 옳게 자극할 수 있으며 기술 혁명의 성과적 수행을 적극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 도급 임금 중 초과 임금 부분은 생산 및 절약 과제의 수행 정도, 어렵고 힘든 일에서, 로동 규률 준수에서, 작업반적으로 제기되는 사업에서 누가 모범적인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된 조별 및 개인별 점수에 의하여 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왜냐 하면 작업반에 부과된 생산 계획을 초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작업반 성원들은 어렵고 힘든 일에서, 로동 규률 준수에서, 작업반적으로 제기되는 사업에서 헌신성과 적극성을 발휘하며 개인별 과제를 초과 수행하는 것으로써 해당한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분배 방법을 적용함으로써만 일'군들의 물질적 관심을 자극하는 공간을 통하여 동시에 그들을 집단주의 정신으로 교양하는 사업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반 성원들 간의 상금 분배는 초과 임금의 분배와 기본상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금 분배를 위한 점수 평가에서는 초과 임금 분배를 위한 그것에 비하여 집단주의 정신 발양에서의 성과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두는 방향을 취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왜냐 하면 상금 지불에 있어서는 로임 지불에 대비하여 볼 때 집단주의 정신의 발양에서의 성과와 같은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위하여 우리가 지향하는 바로 그러한 것을 장려하는 측면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작업반 내부 채산제의 성과적 도입 및 강화를 위하여 선결적 문제로서 해결되여야 하는 것은 광범한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기업 관리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제고시키며 그들이 기업소 경영 활동의 개선을 위한 사업에 열렬적인 관심을 가지고 창조적 지혜와 적극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적극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작업반 내부 채산제를 강화할 때 대중을 기업 관리에 인입하며 인민 경제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함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문답 학습

정치와 경제의 호상 관계

사회 현상을 과학적으로 리해함에 있어서 정치와 경제 사이의 관계를 명백히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인류 사상사에 있어서 이 문제가 정확히 해명되기까지에는 오랜 기간이 요구되였다.

부르죠아 사상가들은 정치와 경제의 밀접한 관계를 보지 못하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을 과대시하거나 량자를 분리시켜 보았다. 이들은 착취 사회에서 정치 제도, 국가 제도가 근로자들을 략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지 않으려 하였다. 특히 정치와 경제를 서로 별개의 문제로 보도록 설교하는 데 갖은 방법과 수단을 다하였다.

맑스주의 발생 이전 공상적 사회주의자들도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켜 보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사회의 악과 빈궁을 근절하는 방도를 규정함에 있어서 그것을 낳는 경제 제도 자체의 청산이 아니라 리성적인 그 어떤 정치 기구의 수립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오직 맑스주의 발생만이 정치와 경제 사이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천명하였다.

사람들은 살아 가기 위하여 우선 먹고 입고 사는 데 필요한 물질적 부를 생산하는 과정에 들어 서게 된다. 여기서 그들은 자연과의 관계를 가지게 되며 사람들 호상간에도 일정한 관계를 맺게 된다. 이 관계의 기초에는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 관계, 생산물에 대한 분배 관계 등 기타 경제적 관계가 놓여 있다. 이 관계를 떠나서 인간과 사회란 있을 수 없다.

사회의 경제 제도란 바로 이러한 생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관계의 총체를 말한다.

력사 발전의 매 단계에 따르는 사회의 성격도 이 관계에 의하여 규정되며 사회의 정치도 이것을 반영하여 발생한다. 원시 공동체 사회, 봉건 사회, 자본주의 사회,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로 구분되는 것도 매개 사회에서 경제 제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경제적 관계들은 계급적 리해 관계를 표현하며 정치, 법률, 도덕, 종교, 예술 등 모든 이데올로기적 상부 구조들도 경제적 제 현상을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는 경제에 의하여 규정되는 만큼 자본주의 나라 근로자들이 자본의 멍에에서 해방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정치적 자유도 달성할 수 없다.

또한 독립을 쟁취한 나라에서도 자기 나라의 경제를 자립적으로 발전시킴이 없이는 쟁취한 정치적 독립도 공고히 유지 될 수 없다.

일찌기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자기 민족의 자립적 경제의 기초를 확립하여야만 된다…자립 경제의 기초를 확립하자면 인민 경제의 발전과 향상이 있어야만 되며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독립도 할 수 없고 건국도 할 수 없고 또한 살 수도 없는 것이다.》 (선집 제 1 권, 438 페지)

만약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나라도 국제적 관계에서 평등과 자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때문에 자립적 민족 경제를 반대하는 것은 사실에 있어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평등권을 거부하는 것으로 된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원조》의 미명하에 다른 나라들의 경제를 예속시키면서 그 나라의 정치적 통수권을 장악한다. 특히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구라파 공동 시장》, 《대서양 공동체》, 《세계 경제의 통합》 등으로 떠들고 있는 것은 그 어느 것을 불문하고 약소 국가를 《공동체》에 망라시켜 자기들의 정치적 지배에 복종시키려는 데 그 침략적 본질이 있다.

경제적 자립은 정치적 독립의 기초로 된다. 때문에 경제에서의 외세 의존은 정치에서의 외세 의존을 가져 오며 경제적 예속은 정치적 예속을 가져온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남조선에서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원조》를 통하여 남조선 정권의 경제 활동의 기본 예산과 금융 기관을 비롯한 전반적 경제 명맥을 장악하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비를 충당하는 데 리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남조선 인민들이 정치적 자주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북반부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를 튼튼히 구축하기 위한 우리 당의 시종 일관한 방침의 정당성은 바로 이 방침이 완전한 정치적 독립과 그의 공고 발전이 나라의 공고한 경제적인 자립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확고히 의거한 데 있다.

정치가 경제를 반영한다 하여 수동적으로 경제에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비록 정치 제도는 경제 제도에 의하여 규정되지만 그것은 경제 제도를 유지하며 공고 발전시킴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작용을 한다.

레닌은 경제에 대한 정치의 적극적 작용을 강조하면서 《정치는 경제의 집중적 표현이다…정치는 경제에 대해서 우위를 차지하지 않을 수 없다. 달리 론의하는 것은 맑스주의의 초보까지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레닌 전집, 제 32 권, 94 페지)고 지적하였다. 물론 이것은 정치가 먼저 발생하고 다음에 경제가 발생한다거나 정치가 1 차적이고 경제가 2 차적이라는 것이 아니다. 정치의 우위성은 어떠한 계급도 정치적 권력이 없이는 자기의 경제적 지배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착취 계급과 피착취 계급, 피압박자와 압박자 간의 리해 관계의 불상용성은 정치에서, 정치적 투쟁에서 최고도로 표현된다. 때문에 주권 전취에 관한 문제가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되는 것이다.

레닌은 《…계급들의 가장 본질적이며 〈결정적〉인 리해는 일반적으로는 다만 근본적인 정치적 변혁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레닌 전집 제 5 권, 2 분책, 153 페지) 있다고 하였다.

경제에 대한 정치의 적극적 작용, 정치의 우위성은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에서 매우 중요한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온갖 기회주의자들과 혁명의 배신자들은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에서 정치 투쟁의 의의를 약화시키며 로동 계급으로 하여금 경제 일면에만 치우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서 혁명의 무기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 이들은 혁명이 승리하기 전까지에는 주민들의 부분적인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적 투쟁만을 절대화하고 혁명이 승리한 이후에는 로동 계급의 독재, 경제에 대한 국가적, 당적 령도의 강화, 국가의 경제 조직자적 기능의 강화 등을 거부하고 있다.

현 시기 유고슬라비야 찌또 도당은 《기업의 자치》를 운운하면서 경제 기업소들이 활동에서 자유주의와 자연 발생성, 부르죠아적 요소들과 경제에서의 무정부성을 초래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새로운 길》인듯이 떠들고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경제에 대한 유일적 지도를 국가의 《간

집》이라고 외곡하면서 경제에 대한 국가의 지도를 거부하며 경제의 《지방 분권화론》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에 대한 국가의 유일적 지도에 의하여서만 사회주의 기본 경제 법칙과 계획적 균형적 경제 발전 법칙을 정확히 리용하고 부단히 생산을 발전시킬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혁명 발전의 모든 경험은 인민 경제 수행에서 국가 주권의 역할 특히는 당적 지도를 높이는 것이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해방 후 우리 당에 의하여 수행된 모든 경제적 변혁의 어느 하나도 인민 정권의 경제 조직자적 기능을 떼여 놓고서는 생각할 수 없다.

우리 당은 인민 경제 발전을 위한 모든 투쟁을 조직함에 있어서 인민 정권을 부단히 발전시켜 왔고 경제에 대한 국가 관리 기구를 체계적으로 개선 강화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정치의 역할을 더욱 높이게 하였다.

특히 최근 년간 우리 당의 현명한 방침에 의하여 창설된 공업, 농업 관리 체계의 개편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더욱 촉진시키는 커다란 계기로 되였다.

경제에 대한 정치의 적극적 작용과 우위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당의 령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당, 그것은 모든 정치적 기구를 통일시키며 하나의 방향에로 이끄는 정치적 지도자이다. 당적 령도의 강화는 나라의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촉진하며 그를 공고하게 발전시킨다. 때문에 우리 당은 내부를 조직 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며 모든 분야에서 당 위원회의 령도적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당적 사업 방법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방침을 강구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정치의 적극적 작용을 부단히 높이게 하였다.

우리 당은 시종 일관하게 모든 사업 분야에서 혁명적 사업 방법의 하나인 정치 사업을 선행함으로써 정치와 경제의 호상 관계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립각하여 경제에 대한 정치의 적극적 작용을 지도 사업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였다.

이리하여 모든 사업에서 정치 사업을 선행할 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문제에 대한 옳은 정치적 취급이 없이는 소여의 계급은 자기의 지배를 유지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자기의 생산적 과업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레닌 전집 제 32권, 95 페지)라고 한 레닌의 교시를 훌륭히 구현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일'군들로 하여금 경제 일면에만 매달리고 그를 절대화하는 경향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 방침은 오늘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확고히 구현되고 있으며 그 위대한 생활력이 비할 바 없이 우월하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매개 일'군들과 당원들은 우리 당의 이 방침의 정당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모든 사업에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영예로운 과업을 더욱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신 언 갑

근로자 제 8 호 (루계 제 222 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발 행 · 1963년 4월 20일 인 쇄 · 1963년 4월 17일

ㄱ—330251 값 40 전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와 농업 문제

판형 4×6판 페지수 140 페지

이 책에는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 하에 창설된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의 본질과 우월성 그의 위대한 생활력이 개괄되여 있으며 농업, 농민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당 방침의 정당성과 창조성이 서술되여 있다.

이 책은 3 개 장으로 구성되여 있다.

제 1 장에서는 농업, 농민 문제 해결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의 원칙적 요구와 그것을 우리 나라 농촌 경리 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 당의 정책과 령도의 현명성을 서술하고 있다.

제 2 장에서는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의 본질과 우월성, 기업적 지도의 특성과 두 소유의 유기적 결합의 창조성, 농업 지도 체계에서 그의 위치 등을 개괄하고 있다.

제 3 장에서는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가 농업 생산력의 발전, 협동적 소유의 공고화, 농민들의 사상 의식 개변과 문화 기술 수준의 제고, 로농 동맹의 강화 등에서 갖는 의의와 생활력을 분석 개괄하고 있다.

이 책은 조선 로동당 출판사에서 발행한다.